

제 8 회 유럽 한국어교육자 협회 워크숍 EAKLE 2020

날짜 : 2020 년 10 월 9 일~10 일

발표 논문 모음 2

- 김지아 : 어휘 학습용 매체로써의 MMORPG
- 김혜란 : 러시아 학습자를 위한 한국 현대 시를 통한 한국어 문법 학습과 한국어 시 낭송
- 리 예카테리나 : 한국어의 한자어 특징과 어휘 교육에 있어서 한자어 학습 원리와 방법
- 박희영 : **Culturality through Gosijos for German advanced students**
- 백영경 : 과업중심 교수법에 기반한 대학 내 비즈니스 한국어 수업 사례

어휘 학습용 매체로써의 MMORPG

김지아¹

I. 들어가기

오늘날 스마트폰과 같은 디지털 기기가 급격하게 발달하면서 기존의 아날로그 세대는 디지털 이민 세대와 디지털 네이티브 등 디지털 문식성이 뛰어난 세대로 교체되고 있다. 이러한 세대에 따라 전통적인 교수법이 이전만큼의 교육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에 따라 디지털 세대의 학습자들이 흥미를 가지고 언어 학습에 임할 수 있게 하는 새로운 상상력과 시도가 요구되는 추세다. 단순히 디지털 기기를 사용한 교재를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세대의 학습 및 교육에 있어서 인쇄 교재를 탈피한 새로운 콘텐츠에 대한 접근에 대한 촉구가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디지털 디바이스를 교육과 접목시키고자 하는 몇몇 시도가 있었으나 관련 연구들은 「초등과학 생명현상 탐구를 위한 과학적 관찰 디지털 교재 개발」², 「중학교 과학에서 혈액 순환에 대한 디지털 교재 개발」³, 「고등학생을 위한 융합학습 모형 기반 호르몬과 항상성 조절에 대한 디지털 교재 개발」⁴ 등 대부분 초등/중등 과학 분야 관련 교과와 디지털 디바이스에 접목시켜보려는 구상과 제안에 한해 이루어졌다. 또한 영어 교육이 아닌 한국어 교육과 디지털 디바이스를 접목시켜 유의미한 성과를 낸 경우는 현재까지 전무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언어 교육과 디지털 매체의 접목에 대한 거의 유일한 연구라 보이는 김수영(2014)의 연구는, 언어 교육에서의 실제성과 그것의 구현을 위한 디지털 교재의 관계를 분석했다는 점에서 연구적 의의를 지닌다. 연구자는 언어 학습에 있어 중요한 요소는, 학습자들이 실제 상황에서 접할 가능성이 높은 과제를 수행하는 기회를 제공받고 이와 동시에 과제 수행을

¹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² 김보미 외, 「초등과학 생명현상 탐구를 위한 과학적 관찰 디지털 교재 개발」, 생물교육, 한국생물교육학회, 2017, 259-267쪽.

³ 신희연 외, 「중학교 과학에서 혈액 순환에 대한 디지털 교재 개발」. 한국생물교육학회, 생물교육, 2017, 117-124쪽.

⁴ 이세훈 외, 「생물교육, 「고등학생을 위한 융합학습 모형 기반 호르몬과 항상성 조절에 대한 디지털 교재 개발」, 한국생물교육학회, 2016, 477-486쪽.

통해 실생활에서 언어가 사용되는 방식과 동일하게 해당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실제성’이라고 일컬었다. 그리고 이러한 실제성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디지털 교재라고 제안한다. 디지털 교재는 기존의 인쇄 교재와 비교했을 때 학습자 필요에 따라 자료 변환, 자료 연계, 수업 방식 등과 관련해 보다 큰 장점을 가지기 때문이다.⁵

하지만 언어 교육과 디지털 매체를 접목한 연구는 그 필요성에 비해 여전히 소수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현재 상용되고 있는 게임이 한국어 학습용 매체로서 활용될 수 있는가를 검토하기 위해 Fulbright의 ETA⁶들을 대상으로 MMORPG⁷ 중 하나인 ‘메이플 스토리’를 한국어 어휘 복습 매체로 사용했다.⁸ 그리고 이러한 시도를 통해 1) 학습자들에게는 한국어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복습하고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2) 교육자에게는 한국어를 학습하고자 하는 수요층을 위한, 보다 흥미롭고 새로운 교수방법으로서 게임이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했다.

II. 선행연구 검토

선행연구 검토에 앞서, 먼저 디지털 교재는 단순히 기존 학습 교재의 내용을 디지털화하여 컴퓨터 화면에 옮겨 놓은 것으로 개념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한다. 즉, 기존의 인쇄 교재를 e-book의 형태로 디지털 디바이스를 통해 읽도록 하는 것은 단지 수단의 차이일 뿐, 이는 디지털 교재를 활용한 교육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디지털 교재는 흥미가 없거나 취향에 맞지 않는 콘텐츠는 보지 않는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의 특성을 고려해, 학습자들이 흥미를 가지고 언어 학습에 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상상력과 시도가 반영된 교육 매체로서 개념화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디지털 세대의 학습 및 교육에 있어서 인쇄 교재를 탈피한 새로운 콘텐츠로의 접근이 필요한 것이다.

그렇다면 디지털 세대를 위한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의 교체가 요구되는 요즘, 디지털 세대를 위한 교육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

사실 디지털 매체와 교육을 접목시키려는 시도들은 기존에도 존재했다. 특히 게임과 언어 교육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그 적용 가능성을 살펴보려 했던 연구를 찾아볼 수 있다. 이연준(2014)은 게임을 이용한 언어교육과 영화를 이용한 언어교육이 흥미의 유발, 핵심어 중심의 학습,

⁵ 김수영, 「한국어 교육의 실제성 구현을 위한 디지털 교재 현황 및 설계 방안 연구」, 우리말교육현장 연구, 제 8권(2호), 우리말교육현장학회, 2014, 243-273쪽.

⁶ English Teaching Assistant, 즉 원어민 교사를 일컫는다.

⁷ Massive Multi-player Online Role-playing Games의 약자로 소위 온라인 롤플레이링게임을 일컫는다.

⁸ 이는 2017년에 Fulbright와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간에 이루어진 협동 프로젝트였음을 밝힌다.

반복성이라는 3가지 차원에서 공통성을 지닌다고 주장하며 기존의 수많은 디지털 매체와 언어 교육을 접목시켜 보고자 했다.⁹ 나아가 Kongmee, et al(2012)의 연구는 학습자가 MMORPG 게임을 직접 플레이하면서 제 2 외국어를 학습하는 것이 기존의 전통적 교수법보다 학습자들의 더 높은 참여율과 동기부여를 이끌어낼 뿐 아니라, 어휘 습득력 및 독해력 상승 등 긍정적인 학습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음을 밝혀냈다.¹⁰ 그리고 이러한 가능성을 넘어 실제로 게임을 언어 교수에 활용했던 사례 역시 찾아볼 수 있다. 김지윤(2004)은,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언어교육의 잠재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강조하며, 그 중에서도 게임은 즐거움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또한 게임이 의사소통을 구체화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기능하기 때문에 학습자의 능동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제시한 바 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영어 단어 학습을 위한 멀티미디어 교육용 게임으로 ‘스티커랜드’를 기획하기도 했다.¹¹ 박성원(2009) 역시, 영어 단어 및 문장을 학습하기 위한 ‘뉘시 게임’ 개발을 기획했으며¹², 이은호 외 3명(2011)도 한자 교육 기능성 게임을 설계하기도 했다.¹³

동시에, 공교육에서도 게임을 도입해보려는 시도 또한 있었다. 2016년 한국국제게임컨퍼런스에서 ‘게임 기반 학습을 위해 함께 일하기(Working Together for Game-based Learning)’라는 주제로 키노트를 진행했던 ‘스콧 프라이스’가 대표적인 예다. 교육용 게임을 인터넷 브라우저에서 플레이할 수 있도록 만든 ‘브레인팝(BrainPOP)’의 프로젝트 디렉터인 스콧 프라이스는 ‘마이크로소프트’를 예로 들어 공교육에서 게임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다.¹⁴ 또한, Way(2011)에 따르면, 실제 닌텐도 DS, 닌텐도 Wii, Xbox 360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학교에서 교육을 진행했을 때, 학습자들의 수업 참여도나 학교에 대한 애착,

⁹ 이연준, 「영화영어 발전을 위한 제안: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의 사용에서 나타난 언어 발달 과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영상영어교육 제 15권(3호), 영상영어교육학회, 2014, 129-147쪽.

¹⁰ Kongmee, I., Stracha, R., Pickard, A., & Montgomery, C., *A Case Study of Using Online Communities and Virtual Environment in Massively Multiplayer Role Playing Games (MMORPGs) as a Learning and Teaching Tool for Second Language Learners*, International Journal of Virtual and Personal Learning Environments, Vol.3(4), 2012, pp.1-15.

¹¹ 김지윤, 「유치아동을 위한 영어교육용 멀티미디어 게임 개발」, 한국디자인포럼 제 9권, 한국디자인트렌드학회, 2004, 145-161쪽.

¹² 박성원, *Teacher role, L1 vs. L2 use and classroom interaction in team-taught elementary school classes in Korea*,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09, 1-154쪽.

¹³ 이은호, 박종국, 김정윤, 김용성, 스마트폰에서 한자 교육 기능성 게임 설계 및 구현, 한국컴퓨터게임학회논문지 제 24권(4호), 한국컴퓨터게임학회, 2011, 99-106쪽.

¹⁴ 정필권, 「게임, 어떻게 해야 교육용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요?」, 『인벤』, 2012.

무엇보다도 단어 학습에 긍정적인 성과를 보였다는 점을 알 수 있다.¹⁵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과 다양한 시도들이 언어 교육적 측면, 특히 한국어 교수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갖지 못하는 이유는 첫째, 디지털 매체 특히 게임 그 자체를 언어 학습에 접목시키는 것이 아닌 단순히 언어 학습의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에 그쳤기 때문이고 둘째, 영어 교육이나 한자 교육 등 극히 일부에만 치중되어 있어 한국어 교육에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며, 마지막으로 질적 연구에만 치중되어 그것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일반화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2018년 여름 Fulbright 언어연수 중 진행된 본 프로젝트는 게임이 한국어 교수법으로 활용될 수 있는가, 그 적용 가능성을 밝히기 위한 노력이었으며, 기존 연구와 비교했을 때 월등히 많은 표본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이기에 해당 매체에 의한 교육적 효과가 보다 다수에게 적용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적 의의를 지닌다.

III. 연구방법 및 절차

3.1. 연구대상 및 연구 내용

본 연구의 연구 대상은 2018년 7월부터 8월까지 진행된 Fulbright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ETA들 가운데 중급반과 고급반 ETA 30명으로 구성되었다. 교수 도구는 MMORPG 게임 중 하나인 ‘메이플스토리’를 활용했다. 이때, 게임 장르의 선정은 윤선정과 임충재(2004)의 연구를 참고했으며, 토의, 협동학습, 탐구학습, 문제해결 및 프로젝트 유형에 해당되는 롤플레잉 장르로 선정되었다.¹⁶ 그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수-학습 유형 장르	강의	개별학습	훈련	토의	협동학습	자율학습	탐구학습	문제해결	프로젝트	모의실험
액션/ 아케이드			○							
어드벤처		○	○	○				○		
보드/ 퍼즐	○		○			○				
롤플레잉				○	○		○	○	○	
시뮬레이션/전략								○		○

¹⁵ Way, J., *Video games as learning tools: a library perspective*, Access, Vol.25(2), 2011, pp.10-16.

¹⁶ 윤선정, 임충재, 「교육용 온라인게임의 기획에서 장르별 교육 효과분석」, 한국정보과학회 영남지부 학술발표논문집 제12권(1호), 한국정보과학회 영남지부, 2004, 225-230쪽.

표 1. 교수-학습 유형에 따른 게임 장르별 비교

이러한 특성을 지닌 MMORPG 중에서도 메이플 스토리는 그 장점 및 유용성의 측면에서 크게 1) 흥미 유발, 2) 접근성, 3) 한국어에의 자연스러운 노출, 4) 활발한 상호작용, 그리고 5) 반복 학습 효과의 이유로 본 연구의 어휘 학습용 매체로 선정되었다. 먼저 해당 게임은 인쇄매체에 비해 화려한 그래픽과 ‘움직임’과 ‘소리’를 동반한 매체적 특성을 통해 학습자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메이플 스토리가 아동과 여성들을 타겟팅해 개발된 게임인 만큼 여타 MMORPG에 비해 조작법이 쉽고 캐릭터가 아기자기하다는 점은 학습자가 보다 쉽게 게임에 접근할 수 있다. 또한 학습자들이 게임 플레이를 통해 보다 쉽고 자연스럽게 한국어가 있는 환경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학습자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 그리고 사냥과 레이드 중심의 다른 MMORPG에 비해 메이플 스토리는 커뮤니티 베이스의 게임 플랫폼으로 토의 형식의 협동 학습에 적합한 게임 장르라고 판단되었다. 마지막으로 가상공간 안에서 퀘스트 수행이라는 프로젝트 형식의 접근이 가능하고 이를 통한 자율적인 학습이 가능하다는 점이 MMORPG가 지닌 장점이다.

이러한 매체의 특성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수업 방안의 주요 목표는 학습자들이 한국어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복습하고 실제로 사용해볼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수업을 구성하는 것이었으며, 이에 대한 방법론은 학습자들이 배운 단어나 표현을 소재로 한 퀴즈를 디지털 공간을 탐색하고 풀도록 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해당 수업은 학습자들이 한국어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복습하고 실제로 적용해볼 수 있도록 구성했으며 수업 일정 또한 퀴즈의 설계에 따라 색깔, 숫자, 사물 이름 등 다양한 주제의 학습이 가능할 것이라는 효과를 기대했다.

본격적인 연구의 진행에 앞서, 연구자는 수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수업 첫 날에 기본 조작법과 거래창 사용법을 설명했다. 구체적인 퀴즈 진행 방식은 다음과 같다.

- ㉑ 교육자는 학습자들이 이용할 LV10의 모험가 직업군 전사 계정을 게임 내 도시 중 하나인 커닝시티¹⁷에 가져다 놓는다.
- ㉒ 교육자는 계정 3개를 준비하고, 특정 아이템을 계정 당 500개씩 준비한다.
- ㉓ 학습자들은 퀴즈를 받기 위해 사냥을 해서 아이템을 수집해야 한다고 고지 받는다.
- ㉔ 이때, 하나의 퀴즈를 받기 위해선 옥토퍼스의 다리 10개가 필요하며, 옥토퍼스 바둑알 1개는 다리 1개로 쳐준다.
- ㉕ 충분한 아이템을 모은 학습자는 교육자 캐릭터를 찾아와 거래를 요청한다.
- ㉖ 교육자는 거래창을 통해 학습자에게 퀴즈를 1:1로 알려준다.
- ㉗ 퀴즈를 받은 학습자는 마을을 탐색하며 정답을 찾는다.

¹⁷ 메이플스토리 내에서 현대의 도시를 모델로 한 거점 마을로 현대 도시를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이 기호로서 구현되어 있었다.

- ㉔ 정답을 찾은 학습자는 교육자 캐릭터를 찾아와 거래창을 통해 정답을 말하고 아이템을 얻는다.
- ㉕ 학습자는 다시 사냥터로 가서 아이템을 수집하고 다른 퀴즈를 받는다.
- ㉖ 이 과정을 반복한다.
- ㉗ 모든 수업 일정이 끝나는 날, 아이템을 가장 많이 모은 연구 대상에게 상품을 준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업이 진행되었으며 해당 수업은 약 4시간 동안의 오전 수업이 끝나고 점심시간이 끝난 5교시에 45분 동안 이루어졌다. 그리고 해당 수업에 제시되는 퀴즈의 내용은 당일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토대로 이루어졌다. 퀴즈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 ㉘ 마을 오른쪽으로 쪽 가면 택시가 있습니다. 택시 옆에는 무슨 가게가 있나요? (정답: Hair Shop)
- ㉙ 택시 왼쪽에는 Hair Shop이 있습니다. Hair Shop 안에는 사람이 몇 명 있나요? (정답: 두 명)
- ㉚ Hair Shop 2층에 있는 의자는 무슨 색인가요? (정답: 파란색/하늘색)
- ㉛ 마을 제일 왼쪽에 있는 파란색 건물은 무엇인가요? (정답: Subway Station)
- ㉜ 지하철 Portal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마티어스'가 서 있는 건물이 보입니다. 무슨 건물인가요? (정답: 니오라 병원)
- ㉝ 병원 안에 있는 시계는 몇 시 몇 분인가요? (정답: 3시 35분)
- ㉞ 약국 안에는 누가 약을 팔고 있나요? (정답: 할아버지)

위와 같은 교수방법을 통해 연구자는 학습자들이 보다 쉽고 자연스럽게 한국어가 있는 환경에 노출시키고 학습자의 탐구 능력을 증대시키고자 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학습자들이 프로젝트 형식(퀘스트 수행)의 학습을 통해 가상공간 안에서 반복 학습을 유도해 반복학습 효과를 기대했다.

3.2. 설문조사 및 설문결과

게임을 통한 언어 교육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연구가 진행되기 전에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사전 설문에서 31명을 대상으로 총 12문항에 대한 설문을, 연구가 끝난 후에는 30명을 대상으로 10문항에 대한 설문을 진행했다.¹⁸ 설문조사 항목과 그에 따른 설문결과는 다음과 같다.

3.2.1. 성별

총 31명의 설문 대상 중 여성은 26명(84%)이었고 남성은 5명(16%)으로 여성의 성비가

¹⁸ 수업 도중에 중급반에 있었던 ETA 1명이 초급반으로 이동해 사후 설문에는 응답하지 못했다.

월등하게 우세했다.

3.2.2. 한국어 기관에서의 학습 경험 유무

총 31명의 설문 대상 중 19명이 한국어 교육 기관에서의 학습 경험이 있으며 그 외 12명은 한국어 교육 기관에서의 학습 경험이 없다고 응답했다.

3.2.3. 게임을 통한 언어 교육 경험 유무

총 31명의 설문 대상 중 23명(74%)이 게임을 통한 언어 교육을 경험한 적이 없으며 그 외 8명(26%)은 관련 교육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3.2.4. 온라인 게임 플레이 기간

총 31명의 설문 대상 중 온라인 게임 플레이 기간이 5년 이상인 인원이 6명(19%), 3-5년은 3명(10%), 1-3년은 2명(6%), 그리고 0-1년이라고 응답한 인원은 20명(65%)이었다.

3.2.5. 주당 게임에 소비하는 시간

총 31명의 설문 대상 중 일주일에 게임에 시간을 소비하지 않는 인원이 16명이었다. 그리고 30분, 1시간, 2시간 이상, 5시간 이상이라고 응답한 학습자는 각각 3명, 5명, 2명, 그리고 4명이었다.

3.2.6. 한국어 교육용 게임에 대한 관심도

해당 설문은 사전 설문 문항으로 7점(1: 관심이 전혀 없다 - 7: 관심이 매우 있다) 척도를 사용했다. 그 결과, 총 31명의 설문 대상 중 한국어 교육용 게임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고 응답한 인원의 수는 27명(4점: 2명, 5점: 5명, 6점: 9명, 7점: 11명)인 반면, 관심도가 낮다고 응답한 인원의 수는 4명(2점: 2명, 3점: 2명)이었다.

3.2.7. 한국어 교육용 게임이 개발된다면 플레이 할 의사가 있는가?

해당 설문은 사후 설문 문항으로 7점(1: 의사가 전혀 없다 - 7: 의사가 매우 있다) 척도를 사용했다. 그 결과, 총 30명의 설문 대상 중 한국어 교육용 게임이 개발되었을 때 플레이를 할 의사가 높다고 응답한 인원의 수는 26명이었다.

3.2.8. 게임을 활용한 한국어 교육에 대한 의견

사후 설문 문항으로 해당 설문은 응답자들이 관련 내용에 대해 자유롭게 서술할 수 있게 했으며 이에 대한 응답은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했다.

IV. 연구결과

위의 설문 결과에 따르면 총 31명의 연구 대상 중 게임을 통한 언어 교육을 경험한 적이 있는 피험자는 8명에 불과해 지금까지 게임이 언어 교육의 주요 도구로 활용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추가로, 게임 경력이 1년 미만에 불과한 피험자도 20명에 달하였으며 1주일에 얼마나 게임을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0시간'으로 응답한 피험자의 비율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하지만 한국어 교육용 게임이 개발에 대한 관심도를 묻는 사전 설문의 6번 문항(7점 척도)에서 소수의(4명) 학습자만이 3점 이하로 응답했다. 이는 대부분의 응답자(약 89%)가 게임에 대한 경험 유무와 관계없이 게임을 통한 언어 교육에 대해 긍정적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사후 설문에 '한국어 교육용 게임이 개발된다면 플레이 할 의사가 있는가?' 라는 문항(7점 척도)에 대해서도 동일 4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교육용 게임의 개발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나아가 해당 수업에서 게임을 활용한 한국어 교육에 대한 의견으로는 '게임을 통해 학습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학습자의 입장에서 편리하고 쉽게 한국어에 접근할 수 있다,' '설계를 잘한다면 좋은 교육적 효과를 낼 수 있을 것 같다,' '재밌지만 문법보다는 단순 어휘 습득에 치중된 교육 매체로 보인다,' 그리고 '어린 아이들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흥미롭고 혁명적인 교육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는 응답이 있었다. 그리고 MMORPG의 특성에 기반한 의견으로는 '한국어를 사용하는 게임을 통해 다른 사람과 협력하는 것이 좋았다,' '게임 내에서 다른 사람과 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 메이플 스토리는 좋은 언어 교육 도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한국어로 채팅방이 제공되어 학습자끼리 서로 도와줄 수 있게 하면 학습자 간에 높은 상호작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 '한국어 타자 연습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응답했다.

V. 맺음말

게임 내 가상공간이 하나의 언어 학습 환경으로 충분히 가치가 있다는 점은 이미 많은 연구자들이 동의하고 있는 부분이다. 특히 게임 안에 구현된 도시들은 목표 언어의 문화권에

있는 현대 도시들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고, 그 도시를 둘러싼 언어 기호들을 학습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가상 공간을 언어 학습에 있어 체험적 차원에서 활용한다면, 하나의 어휘를 배운다고 가정했을 때, 이는 학습자가 단순 의미 암기의 차원을 넘어 그 어휘들이 쓰이는 맥락, 요컨대 화용론적 상황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고 또 연습하는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매체적 특성은 기존 교실환경에서의 학습과는 분명하게 차별화되는 부분이다. 그리고 연구 대상과 관련해, 본 연구에 참여한 학습자들이 모두 한국에서 원어민 교사로서 활동할 예정인 ETA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해당 수업과 설문에서 드러난 이들의 긍정적인 평가는 곧 언어 교육자들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어휘 학습 매체로서 MMORPG가 활용된다면, 교육자와 학습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교육자의 입장에서 게임의 활용은 교육자의 소통 능력과 기획력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학습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그리고 학습자는 높은 접근성을 지닌 게임을 통해 자연스럽게 한국어에 노출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MMORPG가 결과적으로 높은 학습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면, 이는 기존의 한국어 교육 패러다임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고 또 하나의 이론적 체계로 정착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가정을 토대로 진행된 본 연구는 언어 교육에 있어서 새로운 매체, 곧 게임 매체의 활용이 기존의 전통적인 교수 방법에 비해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디지털 세대에게 보다 높은 교육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컴퓨터 게임을 통한 한국어 학습을 실제 수업 커리큘럼에 포함시켜 이를 수업에 적용했고 학습자의 피드백을 통해 게임 매체가 어휘 학습용 도구로서의 활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연구적 의의를 지닌다.

러시아 학생을 위한 한국 현대 시를 통한 한국어 문법 학습과 한국어 시 낭송

김혜란

모스크바 세종학당/모스크바 고등경제대학교

kimconthe@mail.ru / krkim@hse.ru

1. 들어가며

이 글은 러시아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국 현대시를 통해 한국어 문법을 학습하는 것을 바탕으로 러시아의 최초 한국어 언어학자이자 한국 시조를 러시아어로 번역한 알렉산드르 홀로도비치를 소개하고, 또한 한국 현대시를 통해 한국인의 미의식과 문화를 학습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법의 시도를 소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어 교육에서 문학 교육은 문학 작품의 풍부한 언어를 통해 구어학습이나 다른 읽기 자료에서 만날 수 없는 어휘를 접할 수 있고 또한 언어의 다양한 맥락을 이해함으로써 한국어 의사 소통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외국어로서 러시아어를 전공으로 한 본고자는 외국인에게 교육하는 러시아어 교육방법을 살펴 보면, 우선 러시아에서의 외국인을 위한 언어 교육은 첫째로, 기본 문법교육이 끝나면, 많은 책이나 잡지를 읽게 하고, 또한 문학작품의 유명한 구절나 시를 암송을 교육의 전제로 하고 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19 세기 푸쉬킨의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시나 소비에트시절에 한국의 시를 러시아어로 번역한 러시아 여류 시인 안나 아흐마토프바의 시, 예세닌 시 등은, 각 계절이나 삶을 표현하거나 사랑을 노래하는 짧은 시들로써 학생들이 꼭 암송을 해야 하는 대상이 된다. 또한 러시아는 많은 문학의 거장을 배출한 국가로써, 한국어를 배우는 러시아 학습자들은 어느 정도 기본 문법이 학습이 되면, 한국의 단편소설이나 동화, 시 같은 한국어 원본 작품을 읽어 보고 싶어한다. 학생들은 문학 텍스트를 통해 많은 어휘와 한국문화를 알고 익히고자 한다. 시각 청각적 도움을 주는 유투브이 한국문화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지만, 독서를 좋아하는 러시아 학습자들은 원본으로 된 작품을 읽고 그 속에서 문화를 알려는 경향이 강하다. 영어의 학습수준 레벨에 따라 읽기 책이 서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과 같이, 초 중 고급에 따른 문학이나 시 등 읽기 텍스트 가 있는지에 대해 많은 질문을 학생들로부터 많이 받아 보았다. 이런 늘어나는 수요에도 불구하고 각 초급, 중급, 고급 수준에 맞는 외국인이 쉽게 이해하도록 한국어 문법이 설명되거나 단어의 의미에 대해 한국어 주석이 달린 수준별 한국어 읽기 책은 거의 찾아 볼 수 가 없다.

또한 러시아 학습자의 요구와 흥미, 수준에 따른 초.중.고급의 학습자 능력과 학습자 요구에 부합되는 읽기 교수-학습활동을 위한 한국어 텍스트를 선별하는데도 어려움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도, 러시아 학습자들이 한국 역사 및 문학과 문화에 많은 관심을 가지는 러시아 학습자를 심리를 이해 분석하여, 본 고자는 한국어 시집을 통해 한국어의 문법을 학습하고, 암송할 수 있도록 초급 중급 러시아인 학습자가 이해하기 쉽게 쓰여진, 용혜원의 대표시집을 한 번 선정해 보았다. 기계적 언어 연습에서 시작하여, 배운 문법을 시속에 녹여

암송하고 낭송할 수 있도록, 학습자의 흥미와 요구에 기반한 용혜원 시를 실제 교육현장에서 활용해 보았다. 용혜원 대표시집 100 선에는 모든 시가 사랑과 관련된 내용이다. 한국인이 사랑과 만남과 그리움, 이별에 대한 감정을 표현하는 한국어 표현을 익히는 동시에, 한국인의 ‘사랑’에 대한 미학도 같이 이해해 보고자 한다.

즉, 러시아에서 한국어 학습대상자가 한국드라마와 K-pop 을 좋아하는 10- 20 대의 대학생비준이 높음을 고려하여, ‘사랑’이라는 보편적 주제를 중심으로, 학생들이 ‘사랑’이라는 보편적 정서를 공감하고, 한국인의 “사랑” 감정을 시로 표현, 형상화하는 방식을 이해하고 시로 낭독되는 한국어의 아름다움을 알리도록 한다.

2. 러시아 한국어 교육자, 한국 시조 번역 편집자 알렉산드르 홀로도비치와 뵘드스타빈¹

우선, 간단히 러시아어에서의 한국문학인 시조를 러시아어로 번역하여 학생들을 교육한 러시아 한국어 언어 교육자이자 한국어 시조 번역, 편집자인 알렉산드르 홀로도비치에 대해 말해 보고자 한다.



알렉산드르 홀로도비치 (1906-1977)

알렉산드르 홀로도비치는 1906년 5월 11일 (24일)- 1977년 3월 20일, 레닌그라드에 있는, 코트린섬에 위치해 있는 항구도시 크론쉬타드 해군장교집안에서 태어났고, 1917년 홀로도비치 가족은 이르쿠츠크로 이사하게 되고, 다음 블라디보스톡으로 이주한다. 1923년 블라디보스톡 11번 상업/무역 학교를 (예전 블라디보스톡 남자 김나지움)을 졸업, 동양 일본학 교수인 큐네라와 스팔비나가 공부한 외교부 일본 전공의 국립극동 대학 동양학부에 입학하여 공부한다. 1922년 소련/러시아는 극동등 러시아 지역에 있는 일본군을 러시아땅에서 철수를 명하는데 일본어 전공을 하던 홀로도비치는 극동 동양학센터에서 하던 공부를, 1925년 레닌그라드대학교(쌍트 삐쎌르부르그대학)에서 언어와 문화에 대한 일본어 교육을 계속 하여, 1927년에 졸업한다. 1938년 박사학위를 <일본 군사언어 문장론> 논문 주제로, 1949년 <일본어 구조 개론>으로 독도르 학위를 받고, 1940년에는 수석 연구자, 1930년부터

¹ 홀로도비치와 뵘드스타빈 한국학 학자 및 러시아 한국어 교육에 대한 내용은 본 논고자가 러시아어로 된 소논문들에서 발췌하여 번역한 부분이다.

1961년까지 레닌그라드(쌍트 삐제르부르그대학)대학교 교수로, 1936-1937년에는 엠게우대학 교수로 재임한다.

홀로도비치는 독학으로 한국어를 공부했고, 1930년대 초부터 시작하여, 문법과 음운론에 관한 소련 최초의 연구원이자 레닌그라드(쌍트 삐제르부르그) 대학의 한국학 교수가 되는데, 그는 1952년에 설립되어 1960년까지 쌍트 삐제르부르그 동양학 조선(한국)문헌학과를 이끌었다. 레닌그라드(쌍트 삐제르부르그)대학 교수로써 한국(조선)어문법, 한국(조선)언어사, 한국(조선)방언학, 한국(조선)문학사, 한국(조선)역사, 한국(조선)민족(지)학 등 주요 과목을 모두 가르치고 중세 산문 세미나(강습)도 진행했다.

또한 조선(한국) 산문, 시, 민속학의 번역을 편집하고 출판했고, A. A. 아르쵸마에바, A. G. 바실리에브, D. D. 엘리세예브, 립 수, 니키찌나, 라즈코브, A. F. 트로즈비치 등 뛰어난/걸출한 한국문학 번역가그룹에 속한 자기 제자들의 번역을 장려했다.

알렉산드르 알렉세이비치 홀로도비치는 소비에트학문의 발전의 어려운 시기에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한 쉽지 않은 길을 개척한 언어학자로서, 그는 언어학 분야에 생각 고안의 창의자이자, 일본학과 한국학 영역에 많은 계획과 연구의 창립 발기자였다. 알렉산드르 홀로도비치는 본질적으로 블라디보스톡 동방학 연구소 교수 그리고리 블라지미로비치 뵘드스타빈 (1875-1924) 교수가 러시아에서의 한국언어학 토대, 기초의 창시자로서 토대를 닦은 기초를 세운 전통 위에 현대 지식을 계속 연구 발전을 진행하였다.

뵘드스타빈 교수는 러시아에서 최초의 한국학을 이끌고, 블라디보스톡에서 조선으로(한국으로) 한국어와 한국풍습을 배우기 위해 조선에 보내진 최초의 러시아 동양학자이다. 몽골어를 전공한 뵘드스타빈 교수는 러시아 야로슬라브주 태생으로, 1898년 쌍트 삐제르부르그 대학교 동양어학부에서 중국어, 몽골어 및 만주어를 전공으로 하여, 뛰어난 학문활동에 훌륭한 능력을 보여준 러시아 동양학자로서, 뵘드스타빈 교수는 차후 러시아에서 한국어 연구에 대한 과학적이고 실용적인 연구의 기초를 놓은 가장 훌륭하고, 뛰어난 동양학자였다. 그의 이름은 블라디보스톡 동양학 연구소 설립 초기부터 극동 대학으로 개편 할 때까지 블라디보스톡에서의 동양 교육의 발전과 강화에 관련이 깊은 학자이다.

실질적으로 러시아 황제제국대학에서 처음으로 한국어는 1897년 상트 페테르부르크 대학교의 동양학부에서 한국어가 가르쳐지게 되었으며 1899년 유럽에서 첫 번째 한국어 학과가 개설된다. 하지만 이 한국어수업은 한국어 (상트 페테르부르크 대한제국 공사관 직원 김병옥과 민경식) 원어민에 의해서만 진행되었고, 한 교재를 제외하고는, 교육학적 방법론 및 교과서는 거의 남기지 않았다. 실제적으로 고종의 아관파천은 1896년 2월 11일부터 1897년 2월 20일까지임을 고려해 볼 때, 고종의 아관파천 이후 러시아가 조선(한국)에 대한 관심이 커졌음을 알 수 있다. 니콜라이 2세 대관식에 참석한 대한제국 민영환 사절단에게 한국교사 파견을 요청하고 다음해 대한 제국 공사관에 쌍트삐제르부르그에 설립되었을 때, 대한제국 공사관 직원 김병옥 한국(조선)어를 쌍트삐제르부르그대학에서 가르치기 시작한다.

또한 당시 1899년 니콜라이 황제 2세의 칙령으로, 러시아 극동 지역 국가의 전문 실무자를 훈련시키기 위한 새로운 블라디보스톡 동양학 센터가 러시아 극동 변방에 설립되게 된다. 실제적 연해주 블라디보스톡 최초의 러시아로 조선 이민자들이 생겨나게 된 것은 1858년 헝진 조약 이후 이다. 헝진 조약 이후 중국이 러시아에게 아무르 남쪽의 땅을 넘겨 받게 되는데, 러시아 군대가 인수 한 아무르 남쪽 영토에 들어갔을 때, 그쪽으로 군사 및 생활물품을 공급하기가 극히 어렵다는 것을 안, 알렉산더 2세 황제는 1861년 4월 27일, "동 시베리아의 아무르 (Амур)와 연해주지역에서 러시아와 외국인 정착에 관한 규칙"에 서명했고, 알렉산드르 2세는 러시아 극동

지역에 이주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20 년 동안 토지세를 면책한다고 공식발표를 한다. 굽주림과 요청으로 고통을 막기 위해 어느 곳에서나 정착하고 모든 땅을 경작 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조선 농민들에게 러시아 당국은 이주허가에 동의한다. 또한 러시아 차르-알렉산드르 2 세가 허가 서류에 서명 한 지 불과 몇 년 후, 20 가구 출신의 조선인들은 러시아 군 당국에 합법적으로 체류 할 수있는 허가를 요청했으며, 또한 이들을 괴롭히는 만주 강도들로부터의 러시아 국가로부터의 보호를 요청한다. 러시아 당국은 두 요청이 모두 승인하게 되고, 그 후 곧 새로운 조선 이민자들이 국경을 넘어서 러시아로 오기 시작했다.}

뵘드스타빈이 석사 졸업후, (1899-1903) 라스토프나돈누 출신이자 1872- 1876 년까지 쟁트뻬제르부르그 동양언어학부를 졸업한, 러시아 동양학자, 몽골학자, 몽골박사 및 칼미크 문학교수 뵘즈드네예브는 쟁트 뻬제르부르그에서 몽골어 석사과정을 마친 뵘드스타빈(Г.В.Подставин)에게 조선어(한국어)를 공부하고 한국문헌학부를 담당할 것을 제의하고, 블라디보스톡으로 초청한다. 동양학자, 몽골학자이자 칼미크 문학교수인 뵘즈드네예브(А.М.Позднеев)를 수장으로 하여, 열정적인 동양학자 그룹은 러시아 수도 쟁트 뻬제르부르그에서 블라디보스톡으로 니콜라이 2 세 칙령과 함께 파견된다.

그 이후로 몽골어와 중국, 만주어 전공자였던, 뵘드스타빈은 한국 연구를 그의 주요 전문 분야로 하고, 몽골어 연구를 추가 전문 분야로 선택했다. 동양학자, 몽골학자인 А.М. 뵘즈드네브(А. М. Позднеев)의 추천에 따라, 교육부는 Г. В.뵘드스타빈(Г. В. Подставин)을 한국어와 한국 풍습을 배우기 위해 한국(조선)으로 파견한다. 거의 2 년간 (1900 년 봄까지) 그는 푸른 언덕의 나라(страна Зеленых холмов) (조선(한국)의 시적 이름)에서 머물게 된다. 즉, 뵘드스타빈은 러시아에서 조선(한국)어와 한국 풍습을 학습하기 위해 파견된 최초의 한국학 교수가 된다.

조선(한국)에서 Г.В.뵘드스타빈은 모든 다양한 사투리/방언을 습득했고, 가장 풍부한 언어학적 민족지학적 자료를 수집했다. 그 이후, 뵘드스타빈은 여러번 한국과 일본을 방문한다. 뵘드스타빈의 조선방문은, 러시아와 이웃나라 조선(한국)의 학문 및 문화적 유대 강화에 많은 기여를 하게 된다.

1900 년 7 월에 Г.В. 뵘드스타빈은 블라디보스톡 동방학 연구소 교수로 임명되어, 그는 22 년 동안 처음에는 동방학 연구소에서 한국 문학부와 몽골 문학부를 총괄했으며, 그 후 국립 극동대학교 동양학부에서 근무 한다. (1920 년에 동방학 연구소의 이름은 국립 극동대학으로 개편된다.)

일본의 북방 영토에 대한 야욕으로, 러시아 내전 동안 힘의 공백을 이용하여, 1918 년 블라디보스톡과 시베리아 일부를 점령한다. 하지만 1922 년 내전을 끝낸 소련/러시아는 일본을 압박하여 일본군은 소련/러시아 영토에서의 철수명을 내리게 되고, 일본의 식민지하에 있던 조선(한국)은 일본군의 러시아 영토 철수와 함께, 또한 몇 년이 지난 이후 블라디보스톡 극동대학에서 한국어 교육은 중단 된다.

러시아에서 처음으로 한국학의 실제적/실용 국립 대학교가 블라디보스톡에 설립되어, 한국 (조선) 철학 및 조선의 현재 상황 분야는 뵘드스타빈교수가, 조선 역사및 지리학 분야에는 H.B. (그루지아 트빌리시 출신, 동양학자, 역사가 및 민족학자) 큐네르 교수가 담당했었다는 점은 주목 할 만하다. 또한 큐네르 교수는 한국 (조선) 지명 사전도 발간하는데, 큐네르 교수는 블라디보스톡을 떠나, 1925 년 다시 쟁트뻬제르부르그 대학에서 재직하게 된다. 큐네르 교수의

뛰어난 제자 중 한 명인 역사학자이자 동양학자인 레프 구밀료프(Лев Гумилёв)가 있었다. 그는 유명한 러시아 시인 니콜라이 구밀료프와 여류 시인 안나 아흐마또바의 아들이었다. 그의 아버지 니콜라이 구밀료프는 1921년 타간제바의 빼트로그라드 군사 조직 음모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어 체포되었고, 곧 처형을 당하게 되는데, 그의 아들 레프 구밀료프는 (작가, 번역가, 고고학자 동양학자, 지리학자, 역사가, 민족학자, 철학자, 열정적인 민족 생성 이론의 창조자), 아버지 혐의로 인해, 그는 1930, 1940년대 1950년대 10년 이상을 감옥에서 보내야 했으며, 카자흐스탄, 알타이, 시베리아에서 시간을 보내게 된다.

또한 당시 블라디보스톡 동양학 연구소에서 동양학을 공부하던 학생들은 한국과 일본, 중국과 만주, 중국과 몽골 등 두 가지 전문 분야를 반드시 동양 연구소에서 교육을 받았다는 점 또한 러시아에서 한국어 교육이 시작에 참고 되어야 하는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블라디보스톡에는 뱀드스타빈의 참여 없이는 할 수 있는 대규모 문화 사업이 하나도 없었으며, 그는 블라디보스톡의 모든 학문 및 문화 공동체의 회장 또는 회원이었으며, 1903년부터 1917년까지는 블라디보스톡 여자 김나지움(체육관)의 교육위원회 의장직을 맡기도 했다. 몇 년 동안 도시 공동 부모위원회, 직원 연합, 학교 및 기타위원회의 활동을 이끌었으며, 오랫동안 그는 명예 치안 판사, 후견 법원 회원이기도 했다. 1899년에서 1922년까지 한국 문학부 책임자이자, 블라디보스톡 동양학 연구소 교수였던 그는 러시아의 한국(조선)어에 대한 과학적이고 실용적인 연구 개척자였지만, 러시아/소련에서 일본군을 철회와 함께 1922년에 그는 한국(조선)으로 망명하게 되고, 다음 중국으로 망명하지만, 1924년 중국 하얼빈에서 생을 마감한다. 그의 뒤를 이어 일본어학을 전공하던 홀로도비치가 러시아에서 한국어 연구에 대한 과학적이고 실용적인 연구의 기초인 그의 연구 뒤를 이어나가게 된다.

이 시기는 한국이 일본 식민지 아래 있었기 때문에, 일본 학자의 연구만 한국 학문에 접근이 가능했고, 당시 그 기간에는 러시아 학문에서 한국이라는 주제는 요구되지 않았다. 당시 20세기 천재적인 언어학자이자 수 개국 언어의 능통자인 예브게니야 드리트리에비차 뿔리바노라 (профессора Евгения Дмитриевича Поливанова 1891-1938)와 차기 아카데미 학자 니콜라이 이오시보비치 곤라드 академик Николай Иосифович Конрад (1891-1970), 알렉산드르 알렉세이비치 홀로도비치 교수 외에는 한국어 언어학자들이 없었다. 그러나 이 셋 학자도 전공이 일본학자였고, 일본어를 통해서, 주로 일본어 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부득이하게 습득해야 했다. 예를 들어, 등사판에 출시된 <한국어 문법. 1부. 형태학> (1937)은 홀로도비치가 실지적으로, 일본 문법의 문장구조를 본따서 한 것이다. 언급 한 첫 두 학자는 주요 자기 전공분야에서 한국어에 대한 몇 연구만을 남겼을 뿐이고, 홀로도비치만 한국학을 선택했다.

1951-1953년 모스크바에서는 동양학부 대학을 위한 한국어 기본 교과서를 만들자는 아이디어가 생겨나게 되었다. 1950년대에는 극동 연해주, 블라디보스톡 등에서 중앙아시아로 강제추방되었던 고려인들이 대학 입학등 교육을 받기 위해, 모스크바나 썬트페테르부르그로 오기 시작하였고, 또한 그들 중에는 대학 교수로써 자리한 이도 있었다.

동양학부 대학을 위한 한국어 기본 교과서를 만들자는 아이디어는 빅토르 안토노비치 황 윤준 (Виктор Антонович Хван Юндюн) 부교수와 콘체비치 (Л.Р.Концевич) 교사에 의해서 의견이 표명되었다. 대학 교재는 모스크바 동방연구소МИВ(Московский институт

востоковедения) 수석 한국어 교사들인, 황윤준 (В.А. Хван Юндюн), 한득봉 (Хан Дыкпон), 김Φ.3 에게 위임 되었고, 학술 지도부는 이것을 홀로도비치가 수행할 것을 요청을 했다.

홀로도비치는 교과서의 개념, 교육적 자료의 배치 방법 및 한국어 문법현상에 대해 열띤 논쟁이 열렸던 로스토킨스키 프로예즈드 거리에 위치한, 모스크바 동방학 연구소(МИВ)를 샹트 삐제르부르그에서 여러 번 다녀 갔다.

또한 홀로도비치는 그의 권위, 심도 있는 언어 지식으로 공개 학술토론에 참여했으며, 논쟁의 열정과 확실한 논증으로, 특히 황윤준(В.А. Хван Юндюн)을 대표하여, 보통 반대 토론자들을 자기 편으로 끌었다.

1954-1956 년 홀로도비치가 편집한, 시험본 <1 학년을 위한 한국어 교재>가 3 권으로 발표되었다.

이 교과서에는 편집자 및 편집 작업뿐만 아니라 홀로도비치 기본 사상과 관계되는 논문 도입 및 해설이 수록 되어있다.

그러나 이 훌륭한 아이디어는 끝까지 실현되지 못하고, 1954 년 모스크바 동방학 연구소는 없어지게 된다.

1960-1970 년도에는 모스크바와 레닌그라드(샹트 삐제르부르그) 한국학자 사이에 비공개적인 경계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모스크바 쪽은 마주르가 이끌었고, 레닌그라드(샹트 삐제르부르그)쪽은 홀로도비치가 이끌었다. 홀로도비치가 양성한 첫 한국학자 1 세대는 , 라츠코브, 바실레브 임 수, 그리고 한국(조선)문학자는 니키찌나 와 트로체비치 이었다. 홀로도비치는 콘체비치와 니톨스코에의 박사 논문 지도교수였고, 1962 년 <한국어 조사> 라는 책도 저자로서 발간한다. 모스크바에 있는 한국학자들은 주로 현대적 문제를, 콘체비치와 같은 샹트 삐제르부르그 한국학자는 실제 학문과 고전을 연구했다.

홀로도비치의 일반 언어학, 러시아의 한국학 연구에 대한 기여는, 한국 고전을 러시아 독자들이 알게 되면서 많은 것을 이해하고 말 할 수 있다. 홀로도비치 덕분에 중세 시 작품(중세 한국시조)의 높은 예술적 번역본이 나올 수 있었고, 위대한 러시아 여류시인 안나 아흐마또바에게 번역을 할 영감을 주어, 안나 아흐마또바의 고대시조 번역시집을 레닌그라드(샹트 삐제르부르그) 동양학부 한국학과 첫 졸업생인, 홀로도 비치 제자들에게 의해 출간 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그 작품은 첫 한국(조선)으로 파견된 뽀드스타빈 한국학 교수가 조선(한국)을 <푸른 언덕의 나라>라고 부른 것처럼, 은 세기 여류 작가 안나 아흐마또바가 번역한 <영원한 푸른 언덕의 나라>로 조선(한국)을 시적으로 표현하는 시집이름을 달게 되었다. 아직까지도 그 시집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훌륭한 작품으로 남아있다. 본 논고자의 생각으로는 안나 아흐마또바가 한국(조선)어로 시집을 번역을 시작한 것은 그녀의 아들 레프 구밀료프가 샹트 삐제르부르그 대학 동양학부에서 공부를 했고, 그녀의 아들 지도 교수 큐네르가 또한 동양학자, 역사가 및 민속학자로서, 한국 (조선) 지명 사전도 발간할 만큼 한국(조선)과의 긴밀한 학문적 관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뿐만 아니라 홀로도비치가 최초의 러한사전을 편찬은 한국어에서 러시아어로 아흐마또바의 시 번역에 큰 도움을 줬을거라고 본고자는 추정한다.

즉, 소비에트 시절 한국학의 발전 및 계승자로서, 홀로도비치교수의 연구업적들은 권위 있는 최고 러시아 한국학자의 증거품이라고 할 수 있다.

3. 현대 시를 통한 문법 교육의 실제

러시아에서의 한국어 교육의 시작과 발달, 한국어 고전시집의 최초 번역집 발간까지 간단한 역사를 살펴 보았다.

위의 본 논고자가 러시아 한국어 교육에 대한 러시아어로 된 여러 소논문과 자료를 번역한 것이다. 번역한 내용을 살펴보면, 예전의 러시아에서의 한국어 교육은 고전, 언어학, 지리, 민속학, 음성, 방언, 한국어 문법 등에 초점이 맞추어 학문적 한국어 교육을 진행 했음을 알 수 있다. K-POP 과 한국 드라마가 러시아의 한류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지금, K-POP 가사와 유사할 수 있는 한국의 현대시를 통해 역으로 학습자들이 한국 고전으로 접근 할 수 있는 동기 부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의 현대시가 K-POP 의 가사와 유사하지만, 한국의 정서문화가 담긴 “사랑”을 담은 현대시를 번역하여, 학생들과 시속에 담긴 한국의 정서를 느끼고, 시속 반복되는 문법 연습을 하여 올바른 문법 표현과 사용을 익히고, 암송하고 더 나아가서 시 낭송까지 할 수 있는 계획을 만들어 보았다. 초급 학습자일 경우, 각 단어와 문법을 하나 하나 같이 설명과 예시로 시 번역을 완성한 후, 그 한국어에서 러시아어로 번역된 시의 느낌을 그림과 시로 표현해 보는 활동도 할 수 있다.

또한 고급 학습자일 경우는 한국어 시를 미리 학습자에게 제시하여 과제로 각자 번역하여 같이 수업 시간에 직접한 번역의 표현을 공유하여 발표하여, 더 좋은 표현을 같이 공유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러시아 한국어 교육자 알렉산드르 홀로도비치 처럼 학습자에게 한국어에서 러시아어로 번역에 대한 동기를 부여 하여, 많은 한국 문학이 러시아어로 번역 되어 질 수 있도록 장려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본 논고자는 용혜원의 대표 100 시를 러시아 한 학습자와 같이 공동 번역을 해 보았는데, 몇 편을 예시로 보이고자 한다.

러시아 대학에서는 아카데미 1 시간은 45 분으로 하며, 1 빠라. 즉 1 시간의 수업 시간은 45+ 45 분이 합쳐진 90 분을 뜻한다. 대학에서는 주로 주어진 시간에 문법과 읽기, 쓰기의 과정을 진행해야 해서, 특별한 시간을 지정하여 수업을 할 수 없으므로, 수업의 마지막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여 20 분 정도의 시간을 같이 읽고 느낌을 말하고, 반복되는 문법 표현을 익히며, 자연스럽게 암송 하는 것을 유도하여, 집에서 암송해 오는 것을 과제로 한다.

첫째, 도입으로 시를 보여주기 전에, 시의 제목만을 제시 “너를 만나러 가는 길” 하고, 학생들에게 어떤 의미를 뜻할 지, 학생들의 경험과 함께 그 느낌과 생각을 말해 보도록 한다. 여러 학생들의 느낌과 생각을 들은 후, 시를 보여준다. 교사가 한번 시 전체를 낭독하여 학생들에게 들려 준다.

둘째, 제시와 설명 단계에서 단어 설명과 함께 기본적인 문법을 설명하고, 그 다음 기본 단어의 뜻과 문법의 의미 확장으로 가지는 뜻을 설명한다.

문법 설명에서:

- 1) 장소의 위치를 나타내는 조사 “~에서”는 “나의 삶에서” 로 의미가 확장되어 나타 표현됨을 설명한다.
- 2) 또한 “만나다”의 동사가 “만남”으로 명사화 되어, “만남이”로 조사와 결합 되어 주로 표현되어 있음을 설명한다.
- 3) “가슴에 새겨지다” 동사에서 과거 관형의미로, 받침이 없는 동사 “새겨지다”는 “새겨진”으로 표현되고, “내가 가지다” 동사에서 가능성을 나타내는 “~리 수 있다”와 결합하여, “가질 수 있다”는 현재 관형 표현으로 “내가 가질 수 있는” 쓰였음을 설명한다.
- 4) “길”이라는 사전적 의미와 의미가 확장되어 나타난 이 시속에서 “마음이 끌리는”, “희망하고 열망하는”등의 뜻을 여기에서 “길”은 뜻함을 설명한다.
“만나러 가다” 어미”다”를 빼고 받침이 없는 동사어미에서 현재 관형형 “ 만나러 가는 길”

“그리움으로 수 놓다” 어미”다”를 빼고, 받침이 있는 동사 어미에서 현재 관형형 “ 그리움으로 수 놓은 길”

“사랑해야 하다” 어미”다”를 빼고, 동사 어미에서 현재 관형형 “사랑해야 하는 길”

“가장 행복하다” 형용사에서 현재 관형형 “ 가장 행복한 길”

“가고 싶다” 어미”다”를 빼고, 받침이 있는 동사 어미에서 “가고 싶은 길”

“길”에 수식되는 여러 관형의미를 배우고, 학습자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거나, 말하고자 하는 “길”도 말해보게 한다.

셋째, 연습으로써 제시되고 설명된 단어들과 함께 고급학습자일 경우는 직접 자기 번역을 해 보도록 해 볼 수 있고, 초 중급 학습자에게는 러시아어로 번역된 시를 제시하여, 전체 시의 의미를 이해하도록 한다.

이 시를 번역본과 한국 원본을 읽고 난 후 자기 에게 떠오르는 느낌을 학생들에게 말해 보게 하며, 서로 자기 경험과 관련하여 말해 보게 한다.

넷째, 과제로 집에서 이 시를 다음 수업 시간까지 암송하게 하고, 또한 이 시와 함께 느껴지는 느낌을 시와 함께 그려 보게 한다. 한국 시와 러시아 번역본시의 시화가 될 수 있다.

다섯째 과제의 확장, 실용의 한 방법으로, 수업의 확장된 활동의 하나로 학생들의 자발적 과제로 짧은 시 구절을 한글의 캘리그래피아로 예쁘게 써 보게도 하고, 이 시를 누구에게 러시아어나 한국어로 한번 읽어주거나, 낭독 할 수 있게 추천한다.

너를 만나러 가는 길

용혜원

나의 삶에서
너를 만남이 행복하다
내 가슴에 새겨진
내 흔적들은
이 세상에서 내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

나의 삶의 길은
언제나
너를 만나러 가는 길이다.
그리움으로 수 놓은 길
이 길은 내 마지막 숨을 몰아 쉴 때도
내가 사랑해야 할 길이다.

이 지상에서
내가 만난 가장 행복한 길
늘 가고 싶은 길은

너를 만나러 가는 길이다

Дорога навстречу тебе

В моей жизни
Я счастлив встречей с тобой

И оставлен тобой в моем сердце
Глубокий след.

Для меня в целом мире
Ничего драгоценнее нет

Весь мой жизненный путь
Навсегда и везде
Это просто дорога навстречу тебе.

Кружевными узорами из ожидания встречи
Вышит мой путь.

И с него до последнего вдоха
мне не свернуть

Из всех мирских путей
Желанней всего на земле

Счастливая дорога, ведущая к тебе.

만나면 만날수록 ...용혜원

날마다 만나고 싶습니다
뒤돌아서면 보고 싶고
홀로 있으면 그리워집니다.

어젯밤에 만난 그대
이른 아침 눈을 떴을 때도
보고 싶습니다.

만나면 만날수록
보고 있으면 보고 있을수록
기쁨입니다.

우리 사랑은 열정으로
뜨겁게 타고르고 있습니다

그대의 가슴에 기대어 있으면
아무런 근심도 걱정도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랑은
온도가 높아졌나 봅니다

사랑을 하려면
둘 다 폭 빠져버리는
그런 사랑이 되어야
진정한 사랑입니다.

Чем больше встречаю с Вами, тем больше
хочется встречать

Я хочу встретиться с Вами каждый день
Когда поворачиваюсь, хотелось бы еще видеть
Вас
Когда один нохожусь, я скучаю по Вам.

Вчера ночью встречавший Вас
Когда даже открою глаза ранним утром
Я скучаю по Вам.

Тем больше с Вами встерчаюсь,
Тем больше на Вас смотрю
Это моя радость

Наша любовь горячо
Горит страстью

Когда я опираюсь на Вашем сердце,
У меня никого беспокойства и волнения нет.

До такого степени тепература нашей любви
Кажется согрелася.

Чтобы быть влюбленным
Оба должна увлекаться любовью
Такая любовь – настоящая любовь

두 번째 소개되는 시는 “만나면 만날수록”이다.

첫째, 학생들에게 시의 제목만을 제시하고, 무엇을 뜻할 것 같은지에 대해 물어 본다. 어렵게 표현된 문법이라 학생들이 잘 이해를 못 할 경우, 러시아의 문법 “Чем больше .., Тем больше..”, “.. 면...르수록”의 표현으로 반복되는 행위나, 감정의 강도가 커짐을 나타내는 문법의 쓰임이라고 설명한다.

둘째, 제시와 설명 단계에서 단어 설명과 함께 기본적인 문법을 설명하고, 그 다음 기본 단어의 뜻과 문법이 의미 확장으로 가지는 뜻을 설명한다.

문법 설명에서: 반복과 강도의 커짐을 나타내는 표현과 “~고 싶다” 문형이 이 시에서 반복되어져 학습되는 문법이다.

- 1) “날마다”에서 “마다”는 반복되는 의미를 지닌 조사임, 또한 “~면”은 언제 КОГДА 를 뜻한다고 설명한다: “돌아서다” - “돌아서면”, “홀로 있다” - “홀로 있으면”, “보고 있” - “보고 있으면”, “가슴에 기대어 있다” - “가슴에 기대어 있으면”
- 2) , “동사+ ~고 싶다”의 시속 문법을 설명한다.
“만나다” + “~고 싶다”- “만나고 싶습니다”/ “보다” + “~고 싶다” - “보고 싶습니다” 또한 “싫어요”라는 표현이 아닌 상대를 높이는 “~습니다/~습니다” 즉, “싫습니다, 그리워집니다, 걱정도 없습니다, 온도가 높아졌나 봅니다” 표현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아직은 가깝지 않고, 자기 사랑을 독백으로 고백하고 있음을 짐작 할 수 있다.
- 3) “ 만나면 만날수록”. “보고 있으면 보고 있을수록”의 점점 강화되는 표현을 설명하고 학생들이 이해를 한 이후, 스스로 학생들이 이와 비슷한 문법 표현을 만들어 보게 유도 한다. 예를 들어 “ 먹으면 먹을수록”, “자면 잘수록”,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등
- 4) “~고 있습니다”는 현재 진행중인 문법표현으로 “뜨겁게 타오르고 있습니다”라는 표현은 시적 자아의 현재 사랑하는 이에 대한 사랑이 뜨거움을 표현하고 있으며, 학습자들에게 사랑과 관련하고 “~고 있습니다”를 활용하여 말해 보게 한다. 예를 들어 “지금 당신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지금 당신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등.
- 5) “아무런 …도…도 없습니다” 문법 표현은 부정을 강조하는 표현으로 강한 긍정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설명한다.
- 6) “ ~나 봅니다”는 러시아 문법 “Кажется + 동사 과거형” 으로써 '갔나 봅니다', '먹었나 봅니다' 라는 여러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 준다.

셋째, 번역된 시를 학생들에게 제시하고, 교사가 전체적으로 한번 더 시를 읽거나 낭송하고, 학생들 스스로 다시 한번 읽어보게 한다. 그 이후 학생들이 시를 읽고 난 후의 느낌을 말해보게 한다.

넷째, 과제로 집에서 암송하게 하고, 자발적 희망자에 한해서 시화를 만들어 보게 하거나, 맘에 드는 시 구절을 한국어 칼리그래피아로 쓰게 하고, 책갈피로 만들 것을 추천한다.

함께 있으면 좋은사람 1

그대를 만나던 날
느낌이 참 좋았습니다.

착한 눈빛, 해맑은 웃음
한마디, 한마디의 말에도
따뜻한 배려가 담겨 있어
잠시 동안 함께 있었는데

오래 사귄 친구처럼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내가 하는 말들을

То, с кем мне хорошо быть вместе 1

День, когда я встретил тебя
Был чудесным переживанием:

Доброта сияния твоих глаз, светлая улыбка,
Тепло и забота
В каждом твоём слове...
Мы пробыли вместе недолго,

Но нам было приятно на сердце,
Будто встретились старые друзья

Ты слушаешь меня

웃는 얼굴로 잘 들어주고
어떤 격식이나 체면 차림 없이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솔직하고 담백함이
참으로 좋았습니다.

그대가 내 마음을 읽어주니
등지를 잃은 새가
새 보금자리를 찾은 것만 같았습니다.
짧은 만남이지만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을 함께
나누고 싶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장미꽃 한 다발을 받은 것보다
더 행복했습니다.

그대는 함께 있으면 있을수록
더 좋은 사람입니다.

с улыбкой на лице
Без напускной манерности,
Без маски, без притворства,
Как есть,
И искренность твоя
Прекрасна.....

Ты мою душу можешь прочитать, как книгу!
Я – словно птица, потерявшая гнездо,
Что новую тихую гавань нашла.
Наша встреча была коротка,
Но исполнена радости.
Впервые за долгое время, я встретил ту,
С кем хочу поделиться
сердечными чувствами.

Я был так счастлив,
Что это больше, чем букет роз
Для любимого человека.

Чем дольше мы вместе,
Тем сильнее я влюбляюсь в тебя.

“함께 있으면 좋은 사람”의 시에서는 비교의 문법표현을 배우고, 유희에서 “함께 있으면 좋은 사람”의 노래도 들려 준다. 시적 표현에서 “함께 있으면 좋은 사람”이라는 표현은 러시아에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으로 더 직접적으로 표현되는데, 이 시속에서는 사랑하는 사람과 있으면 좋은 느낌과 표현을 “함께 있으면 좋은 사람으로” 한국어로 간접적으로 표현되어져 있음을 설명해 준다.

“오랜 사귄 친구처럼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새 보금자리를 찾은 것만 같았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을 함께 나누고 싶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대는 함께 있으면 있을수록 더 좋은 사람입니다” 이와 같은 표현은 같이 있으면 느낌이 좋고, 편안함을 나타내는 한국어 표현이라고 설명해 준다.

비교의 표현인 “처럼” как, Будто встретились старые друзья 오랜 친구를 만난 것 처럼, “~은/을 것만 같았습니다”의 문법을 설명하고, 기계적 연습을 한다. “나비처럼 날다”. “연예인처럼 잘 생겼다”, “기분이 좋아서 날아 갈 것만 같았습니다”, “제 운명을 만난 것만 같았습니다” 등을 표현을 반복해 본다.

과제로써, 함께 있으면 좋은 사람의 얼굴이나 이미지를 그려 보거나, 그 사람의 느낌과 표현을 시적 표현이나 작문의 형식으로 써 보게 한다.

사랑의 지도

용혜원

Карта любви

사랑을 할 때는

Когда я влюблен

내 마음에 언제나
그대를 찾아갈 수 있는
사랑의 지도가
한 장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Было бы хорошо, в моем сердце
Всегда была карта любви.

사랑에 깊이 빠지면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사랑도 멀리 떨어져 있으면
소식을 몰라 길을 헤멜 때가 있습니다.

Когда сильно влюблен
то порой я могу заблудиться в пути
И когда любви далеко
Когда от любимой восточки нет,
То с пути ненароком долго свернуть (долго
могу заблудить дорогу к тебе)...

사랑을 할 때는
내 마음의 지도에
그대가 있는 곳이 언제나
표시되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Когда я люблю,
Мне хотелось бы , чтобы в сердце всегда
На карте любви отражались места,
где находишься ты,
где можно встретить тебя.

사랑을 할 때는
두 눈을 크게 뜨고
내 마음에 있는 지도를 펴고
그대가 있는 곳을 표시해놓고 싶습니다.

Когда я люблю
Мне бы хотелось,
Широко раскрыв глаза,
Развернуть в моем сердце карту любви
Чтоб обозначить то место,
где ты, где мне можно найти тебя

보고플 때나 그리워질 때면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는 길을
찾아놓고 싶습니다.

Когда я хочу тебя видеть,
когда я скучаю по тебе
Каждый раз, каждый миг
Четко видеть дорогу.
По которой бежать с всех ног,
Чтобы встретить тебя.

시 제목인 “사랑의 지도”를 학습자에게 보여 주며, 제목을 통해 어떤 생각과 느낌이 드는지를 학습자와 이야기 한다. 이 시속에서 배워야 할 문법은 когда “ ~르때” 이다.

문법 설명과 제시에서 “사랑을 하다” -“사랑을 할 때”, “길을 잃어버리다” -“길을 잃어버릴 때”, “길을 헤메다” -“길을 헤멜 때”, “보고프다” -“보고플 때”, “그리워지다” - “그리워질 때” 등 동사와 감정의 표현 형용사를 활용하여 어떤 행동이나, 느낌의 시점을 표현을 확장하여 제시하고 연습한다.

또 다른 문법 “~었으면” 과거시제를 사용하여, 희망이나 바람을 나타내는 표현의 문법을 제시 설명한다. 예시로 “ 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자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유 시간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등의 의사소통의 문법을 확장시켜 제시하고 연습한다.

과제로써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는 지도를 그려보거나, 각자의 사랑의 지도에 대한 이미지를 시화로 나타내어 보게 한다.

당신은 아십니까?

사랑이 활짝 열렸습니다.
아무도 닫을 수 없도록

함께 이 문을 열었기에

우리의 사랑은
영원할 것입니다.

그대를 내 품에 꼭 안으면
희망으로 가득해
온 세상을 가진 듯합니다.
나의 책상에 있는 사진
한 장이
방 안 가득 사랑을
채워놓습니다.
당신은 아십니까
이 마음을

Знаешь ли ты?

Любовь открыта со всех сторон.

Мы вместе открыли

Дверь любви,

Чтобы никто не смог

Запереть её.

И теперь наша любовь

будет вечной.....

Когда я обнимаю тебя крепко,

Моя душа переполняется надеждой,

И кажется, весь мир в моих руках.

Одна лишь фотография

на моем столе

Наполняет комнату любовью.....

Знаешь ли ты

о моем сердце этих чувств?

“당신은 아십니까?” 시에서는 의문형 문형으로 “~ㅂ니까?”는 의문형으로 직접 상대방에게 물을 때, 사용되는 표현이나, 여기에서는 대화가 아닌, 독백으로 자기에 묻는 형식으로 표현되어 졌음을 설명해 준다. 고백하지 못하고 혼자서 표현하는 사랑으로 나타나 있으며, 한국 고대 시조 “가시리”의 시를 고대 표현과 현대어 풀이를 같이 하여, 학습자에게 제시한다. 사랑을 노래하는 현대시와 고대 시조의 “가시리”를 같이 비교 대조하면서, 학습자들에게 현대시에서 고전시조로 다가 갈 수 있도록, 동기와 흥미를 유발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p><가시리></p> <p>가시리 가시리잇고 나는 바리고 가시리잇고 나는 위 증증가 대평성대(大平盛代)</p> <p>날리는 엇디 살라 하고 바리고 가시리잇고 나는 위 증증가 대평성대(大平盛代)</p> <p>잡사와 두어리마나는 선하면 아니 올세라. 위 증증가 대평성대(大平盛代)</p> <p>설은 님 보내옵노니 나는 가시는 듯 도셔 오쇼셔 나는 위 증증가 대평성대(大平盛代)</p>	<p><현대어 풀이> <가시리></p> <p>가시렵니까 가시렵니까 나를 버리고 가시렵니까</p> <p>나는 어떻게 살라고 버리고 가십니까</p> <p>잡아 두고 싶지만 서운하면 다시 내게 돌아오지 않을까봐</p> <p>설은 임 보내드리니 가시는 듯 하다가 다시 돌아오세요</p>
---	---

본고자는 사랑을 주제로 한 용혜원 시를 러시아 학습자들과 함께 나누고자 했다. 용혜원 시인의 시는 시가 곳곳에 산뜻한 감성으로 솔직 담백한 표현에서 친근하고 마음속 깊이 공감 가는 시어에서 사람들에게 많은 호감을 느끼게 한다. 그의 시는 사랑이라는 주제에서 파생되는 이별, 그리움, 고독 등도 있다. 그의 주제와 한국 고대 시조의 사랑과도 함께 학습자에게 “사랑의 미”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랑의 감정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맑고 고운 한국어로 표현한 그의 시를, 한국어 문법 교육과 함께 러시아 학습자의 가슴에 사랑의 꽃으로 피워보고자 시도를 해 보았다.

4. 나가며

한국 현대시 용혜원의 100 편의 시를 번역을 했으며, 각 단원에서 학습되는 문법과 학습자 수준을 고려하여, 시를 선별하여, 기본 문법을 학습하고, 의미 확장 문법 즉, 의사 소통 중심의 문법으로 확장을 시도 하고 있다. 아직 시도 중으로, 어떤 결과와 효과에 대해서는 단정 지을 수 없으나 학습자들에게 흥미와 문법활용에는 큰 도움이 되고 있다. 확장된 문법, 의사소통 중심의 문법으로 말할 때 해당 문법을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학습자들이 지니게 되었다.

의사소통 중심의 문법 교육은 학습자의 의사소통 능력을 도움을 주는 중요한 도구 기능을 하며, 의사소통적 문법을 통한 읽기, 말하기 교육은 학습자의 말하기 능력을 확장시킬 수 있음을 현장 학습으로 한 번 더 알게 되었다. 수요자 - 학습자 중심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습자의 목표에 충족 시킬 수 있는 의사소통적 문법에 읽기 교재 개발이 특히, 한국어 원본을 읽기 바라는 학습자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그와 같은 교재나 책의 필요성에 대해 말하고자 했다. 대부분 문법교재는 문법의 의미와 형태에만 치중한 형태 연습에서 그치는 교재가 많다. 학습자가 문법 의미와 기능을 익혀 문법을 정확하게 사용하도록 지속해서 그 문법 의미와 기능을 익힐 수 있도록 한 시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한국어 읽기 책 교재나 러시아어로 번역된 교재, 책들은 적은 편이지만, 차후 이 시도가 러시아 학습자들에게 스스로 한국어 시나 문학, 문화 영역에 한국어 번역에 까지 할 수 있는 동기 부여까지 확대되기를 기대해 보며, 시를 통해 문법 학습에서 시 낭송으로 이어져, 온라인으로 통한 유럽지역 대학생 한국어 시 낭송대회를 개최해 보는 것도 한 번 기대해 보며 본고를 마친다.

참고 문헌

- 1 «100 лет петербургскому корееведению». Материалы международной конференции, посвященной столетию корееведения в С.-Петербургском университете. 14–16 октября 1997 года» СПб., 1997; Васильев А. Г., Рачков Г. Е. Из истории преподавания и изучения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в Санкт-Петербургском университете ... // «Вестник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и культуры». Вып. 2. СПб., 1997. С. 7–18.
2. ХОЛОДОВИЧ Александр Алексеевич // http://www.rauk.ru/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1552%3A2014-10-27-20-14-29&catid=126%3A2011-04-02+19%3A33%3A16&lang=ko&Itemid=143
3. КОНЦЕВИЧ Лев Рафаилович
http://www.rauk.ru/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1141%3A2011-04-02-193316&catid=126%3A2011-04-02+19%3A33%3A16&Itemid=143&lang=ru
4. 용혜원, 용혜원 대표시 100, 책만드는 사람들, 2010, C.1-172.

한국어의 한자어 특징과 어휘 교육에 있어서 한자어 학습 원리와 방법

리 예카테리나

이르쿠츠크 국립 대학교

본 발표는 한국어 어휘 체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한자어 특징과 어휘 교육에 있어서 한자어 교육 필요성을 감안하여 한자어 학습 원리와 방법을 살펴보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한국어의 어휘 체계는 원래부터 한국 사람들이 사용해 온 고유어와 한자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한자어, 그리고 현대에 들어와 외국으로부터 들어온 외래어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중에 한자어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조사에 따라 차이는 보이지만 적게는 50%에서부터 많게는 70%까지 이른다 (윤유선, 2007).

표준국어대사전의 어종별 통계에 따르면 고유어 25,28%, 한자어 57,15%, 외래어 5,26%, 고유어+ 한자어 8,28%, 외래어+ 고유어 0,3%, 한자어+ 외래어 3,53%, 한자어+ 외래어+ 고유어 0,17%이라고 한다 (오윤정, 2013 재인용). 그리하여 한자를 이용해서 형성된 어휘는 모든 어휘 중 70% 가까이 되며 한국어 어휘 체계에서 한자어의 비중이 얼마나 높은지 쉽게 알 수 있다. 이러한 한자어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한국어 학습자들은 한자어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 중요성에 비하여 최근까지도 한국어 교육에서 한자어 교육은 미미하게 다루어지고 있는데, 한자 교재들은 대부분 ‘한자어의 근본인 한자’의 골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진은선(2015)은 일본, 중국과 같은 한자권 학습자의 경우에는 이미 모국어의 영향으로 한자 자체에 익숙한 상태이며 한국어 한자어와 모국어 어휘가 비슷한 의미나 쓰임, 심지어 발음마저 비슷한 경우가 많기에 한자어에 대한 부담이 비교적 적다고 볼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중국과 일본 학습자들과 달리 비한자어권 학습자의 경우는 한자 자체가 또 다른 제 3의 목표어가 되어 학습자에게 큰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한자어 교육을 한자 교육과 구별하여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비한자권 학습자 경우에는 한자 교육에서 벗어나서 한자어 교육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자어의 특성 중에 하나는 각각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형태소¹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다. 학습자들에게 한자어를 이루는 형태소의 정확한 의미를 제대로 가르쳐 준다면 학습자들은 한자어에 대한 이해도와 습득력이 높아지고 언어 생활을 더욱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판매’, ‘밀매’, ‘경매’, ‘매장’ 등과 같은 단어를 접할 때 ‘매’는 각각의 단어에서 ‘팔다’를 지칭한다는 것을 알려 준다면 앞으로 학습자들이 이 형태소가 들어 있는 한자어의 뜻을 보다 쉽게

¹ 한자어를 이루는 형태소는 한자라고 할 수도 있음. 원래 한자는 문자(문자)를 가리키기도 하고 한자어가 되기 이전의 형태소를 가리키기도 한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한자어는 한자로 만든 단어라고 볼 수 있다.

파악하고 습득할 수 있을 것이다. 그외에도 한자어는 접두사, 접미사로 기능하는 경우가 많아서 어휘 확장에도 체계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본다.

위에 언급했듯이 한자어 교육 때 한자어가 고유어에 비해 조어력이 풍부하다는 점을 언급해야 한다. 한자어가 신어 형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연구는 노명희 (2005), 심재기 (1987), 김광해(1989), 신기상 (2005)등이 있다.

조어력이 높다는 것은 개별 한자가 지닌 의미의 융통성이나 통사적 기능의 다양성에서 연유한다. 심재기(1987) 따라서 조어력이 높은 개별 한자들은 한자어 속에서도 그 의미와 기능이 다양하다. 가령, '학(학)'은 '배우다'라는 의미로도 사용되고 '학문'의 의미로도 사용된다. '생 (생)'은 '태어나다' 혹은 '인생'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고 '젊은 사람'이라는 의미도 가지며 '익지 아니한' 혹은 '가공하지 아니한' 의미를 갖는 접사로도 쓰인다.

학: 1) 학교, 학생, 방학, 입학, 학기 등 ('배우다'의 의미)

2) 경제학, 수학, 의학, 문학 등 ('학문'의 의미)

생: 1) 생일, 생신, 발생 등 ('태어나다'의 의미), 일생, 생활, 생명, 인생 ('일생'의 의미)

2) 학생, 연수생, 졸업생 등 ('젊은 사람'이라는 의미)

3) 생과일, 생가죽, 생선 등 ('익지 아니한', '가공하지 아니한'의 의미)

반면 일정한 의미와 기능을 하는 것도 있는데 '적(적)'의 경우 접미사로만 사용된다.

객관적, 과학적, 구체적, 법적, 전문적 등 (파생 접미사 기능)

이영희는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학습 사전' 어휘 조사한 결과, 가장 높은 조어력을 보이는 한자는 '인(人)'으로, 총 55 개의 한자어를 만들어 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에 '학(學)' (50 개), '생(生)' (47 개), '대(大)' (46 개), '적(的)' (46 개), '국(國)' (44 개) '일(日)' (36 개), '용(用)' (32)개, '일(一)' (31 개), '리(理)' (31 개의 한자어 형성) 등 가장 높은 조어력을 보이고 있다 (이영희 2015).

한자어 교육을 제대로 하려면 우선 일정한 기준에 따라 학습할 한자를 선정하면 좋다고 본다.

외국인이 학습해야 할 한자 선정 기준으로 사용 빈도가 높은 한자, 사용 범위가 넓은 한자, 교육에 기초적인 한자, 조어력이 높은 한자, 학습자 발달 단계에 맞는 한자를 들기도 하고(정승혜, 1998), 교육용 어휘에 포함된 한자어를 구성하는 한자, 대응 고유어가 없는 한자, 외국인을 위한 한자 교재에서 중복도가 높은 한자, 일상생활에서 많이 보는 한자, 다른 한자의 기초가 되는 한자, 한자어의 의미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한자를 산출하기도 한다(김지형, 2013).

그런데 위 기준을 학습 단계와 관계 없이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그래서 학습자 수준에 맞는 한자를 선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중급 이상의 학습자 경우에는 무엇보다 전공 목적 한자어 교육을 위한 고려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즉 학습자들이 앞으로 접하게 될 한국어 시사 용어와 기념을 나타내는 한자가 우선적으로 선정되어야 한다. 그래서 중급 이상의 단계에는 앞에 제시된 기준과 함께 시사 한국어 주제별 용어와 관련성이 높은 한자가 추가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한자어 학습을 위한 효율적인 방안과 이에 따른 교재 개발 기준을 제시한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자어 형태소의 조어력을 활용한 어휘 확장을 꾀해야 한다. 효과적인 한자어 교육을 위해 한자어의 특성인 조어력을 활용한다면 학습자의 어휘 확장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둘째, 한자어 교육은 한자 형태보다 음과 뜻에 집중해야 한다. 한자어를 구성하는 형태소의 음과 뜻을 잘 알아야 한자어에 대한 이해력이 높아지고 한자어 의미 파악에 도움이 된다. 자형, 획수, 한자의 형성 원리 등을 언급할 필요가 없다. 반면 제시한 한자마다 쉽고 간결한 설명을 하고 한자의 뜻을 이용하여 이 한자가 들어간 새로운 어휘 의미 파악 연습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사용 맥락을 제시함으로써 한자어를 실제로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한다. 어휘 학습에 있어 어휘의 의미 이해도 중요하지만 문맥 속에서의 쓰임을 이해해야 유의미한 학습이 가능하다.

넷째, 학습자 수준에 맞는 어휘를 제시해야 한다. 학습자들이 벌써 알고 있거나 수준이 낮은 어휘를 제시할 필요는 없다. 한자에 대한 부담을 주지 않고 의미 이해에 초점을 둔다면 중-고급 단계에 맞는 한자 어휘 교육이 가능할 것이다.

다섯째, 배운 한자어 이해도와 습득도를 확인하고 문맥과 상황에 맞게 활용하는 능력을 키우기 위한 연습이 필요하다.

여섯째, 같은 어휘장에 속하는 연관 관계에 있는 한자어들은 함께 가르치는 것이 효과적이다. 한자어를 구성하고 있는 형태소의 의미가 직접 관련되어 유의관계나 대립관계를 이루는 것도 있고 단어의 의미만 관련되고 전혀 다른 한자로 이루어진 것도 있다. 그리고 한자의 형태는 다른데 한국어음으로 같게 발음되어 동음이의 관계에 있는 한자어들이 많다. 이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차이점을 인식시켜 주어야 한다. 그리고 연관 관계에 있는 명사류와 동사류를 함께 묶어서 가르치는 것도 효과적이다.

여덟째, 한자어를 주제별로 학습하는 것이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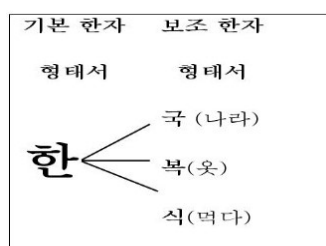
이영희(2015)는 조어력 기반한 한자어 교육은 중급 이상에서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초급에서도 한자어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고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 단지 단계에 따라 제시 방법과 연습 방법이 다르다.

먼저 초급 단계에서 한자어를 중심으로 어휘 교육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초급에서 사용 빈도가 높고 학생들이 벌써 알고 있는 한자 형태서의 기본 의미를 제시한다. 예를 들어, 한-한국, 국-국가, 식-밥/먹다, 인-사람, 학-배우다.

2) 각 한자 형태서와 결합하여 새로운 한자어를 형성할 수 있는 보조 한자 형태소 몇개를 제시한다. <그림 1>에서 한(韓)을 예로 들어보고자 한다.

<그림 1>



3) 학생들은 보조 한자 형태소의 뜻과 조어 원칙을 파악할 수 있도록 <그림 2>와 같이 사례를 들어준다.

<그림 2>

기본 한자	사례
형태서	
국 (나라)	/ 중국, 미국, 국가/
복(옷)	/ 운동복, 교복, 수영복/
식(먹다)	/ 식사, 외식, 중식, 양식/

4) 드디어 새로 형성된 한자어를 제시하고 의미를 알아 마춰보라고 한다.

<그림 3>

기본 한자	보조 한자	사례	한자어
형태서	형태서		
한	국 (나라)	/ 중국, 미국, 국가/	한국
	복(옷)	/ 운동복, 교복, 수영복/	한복
	식(먹다)	/ 식사, 외식, 중식, 양식/	한식

5) 이해도를 확인한다. 학생 한국어 실력과 한자어 어려움에 따라 한국어 설명도 가능하고 모국어 번역이나 그림 제시도 가능하다.

<그림 4>

기본 한자	보조 한자	사례	한자어	한자어 뜻 / 번역
형태소	형태소			
한	국 (나라)	/ 중국, 미국, 국가/	한국	대한민국 / <u>Korea</u>
	복(옷)	/ 운동복, 교복, 수영복/	한복	한국의 전통 옷 / <u>Traditional Korean dress</u>
	식(먹다)	/ 식사, 외식, 중식, 양식/	한식	한국 음식 / <u>Korean cuisine</u>

이런 식으로 새로운 한자어를 제시하고 한자 형태소 의미와 조어 방법을 학생들에게 제대로 설명한다면 한자어에 대한 접근이 쉬어지며 한국어 어휘 습득과 어휘 확장은 보다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다.

6) 뜻을 파악한 다음에 한자어를 문맥에 넣어서 활용 방법을 제시한다.

중급에 들어서면서 학습자 스스로 한자어 습득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게 되고 따라서 학습 효과도 높아진다.

중급 이상의 단계에서는 한자어를 주제별로 학습하는 것이 좋다. 중급과 고급에서 한자어 학습 방법을 단계별로 제시하고자 한다. 경제 관련 한자어 제시를 예로 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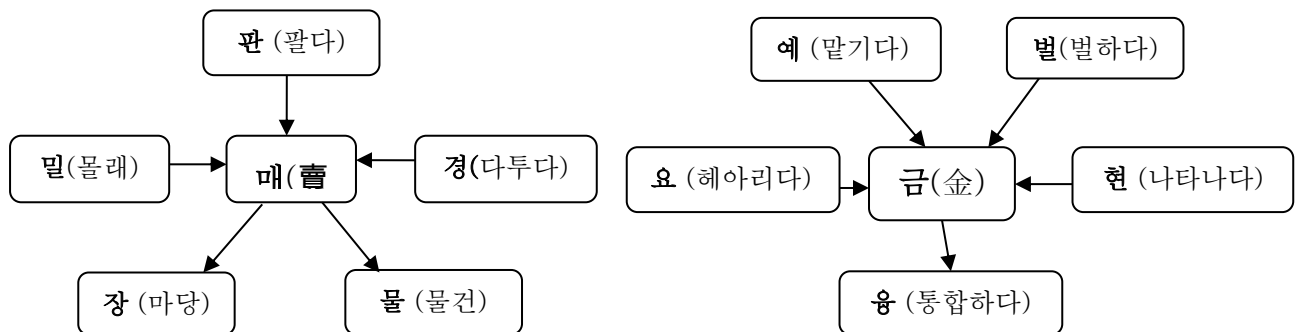
1) 학생들이 학습하는 주제의 주요 용어를 형성하는 목표 한자 형태소를 제시한다. 각 한자 형태소와 한자 그리고 뜻과 음이 함께 제시한다. 학습자들은 중-고급 수준이기 때문에 모든 설명은 모국어가 아닌 한국어로 한다.

<그림 5> 경제 관련 한자 제시 예시

매	매	금	화	비
(買)	(賣)	(金)	(貨)	(費)

2) 목표 한자 각각이 형성할 수 있는 주제 관련 한자어 5 개씩 제시한다. 화살표는 단어 형성 방향을 보여 주는 시각적인 단서가 된다. 학습자들은 목표 한자 형태소와 보조 한자 형태소의 뜻을 알고 있으니 새로 형성된 어휘 뜻을 유출할 수 있다.

<그림 6> 한자어 제시 예시



3) 한자어 제시 후 새로운 한자어를 설명 안에 넣어 보거나 한자어와 설명끼리 연결해 봄으로써 아래 <그림 7>와 같이 의미 파악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그림 7> 의미 파악 확인 연습 예시

✓ 다음 설명에 맞는 한자어를 찾고 쓰세요.

1. _____ 물건을 파는 장소
2. _____ 규칙을 위반했을 때에 벌로 내게 하는 돈
3. _____ 현재 가지고 있는 돈

✓ 한자어와 이에 대한 설명을 연결하세요.

1. 밀매	ㄱ. 상품을 팔
2. 예금	ㄴ. 금지된 물건을 몰래 팔
3. 판매	ㄷ. 돈을 금융기관에 맡김

4) 학습한 한자를 이용하여 문맥에서 새로운 한자어의 의미를 유추할 수 있도록 아래 <그림 8>와 같이 한자어 의미 추측 연습을 제시하는 것도 좋다. 새로 형성된 단어이기 때문에 학습하는 어휘 수가 계속 늘게 된다.

<그림 8> 새로운 한자어 의미 추측 연습

✓ 다음 문장을 읽고 밑줄 친 한자어의 뜻을 생각해 보세요.

✓ 이 한자어를 형성하는 한자의 뜻이 무엇일까요?

1. 예약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매표소에서 티켓을 끊어야 한다.
2. 수입가공식품 가격 조사를 한 결과, 수입 가격과 국내 판매가가 큰 차이를 보였다.
3. 요즘 국민 건강을 위한 담배 소비 억제책이 많이 시행됨으로써 담배 판매권을 지정 받기가 어려워진다.

✓ 한자어의 뜻이 무엇일까요?

1. 매표소 _____
2. 판매가 _____
3. 판매권 _____

그리하여 새 한자어를 익히게 하며 어휘 확장하는 데에 도움이 되기도 하고, 문맥에서 쓰임을 제시하면서 활용 방법을 내보이기도 한다.

한자어 중에 유의어와 동음이의어가 많아서 유의어, 동음이의어 관계에 있는 한자어의 의미를 변별해서 상황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의미 차이점을 보여주고, 사용 분야와 사용 문맥을 간단하게 제시하는 것이 좋다.

학생들은 선생님이 제시해 준 정보보다 자기가 직접 알아서 낸 정보를 더 잘 파악하고 기억하기 때문에 설명하기보다는 학생들이 한자에 대해 갖고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새로 접하는 한자어의 뜻을 그 한자어를 형성하고 있는 형태소 분석과 문맥 분석을 통하여 유추하도록 시키는 것이 어휘를 학습하는 데에 효과적이라고 본다.

앞에 제시된 것과 같이 학습자들에게 한자어 형성 원리에 관한 지식을 제대로 제공하고 한자의 막대한 조어력을 이용하며 교육시키면 한자어 습득이 더욱 효율적일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상으로 한국어 어휘 체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한자어의 특징, 조어력과 교육 방법을 살펴봤다. 한자어 조어력이 풍부하며 조어 원리와 구조별 유형을 학습자에게 이해시키면 한자어 습득이 더욱 쉬워진다.

한자어 학습은 초급 단계부터 가능하며 한국어 실력에 따라 한자어 교육 방법이 다를 수 있다. 앞에 제시된 것과 같이 학습자들에게 한자어 형성 원리에 관한 지식을 제대로 제공하고 한자의 막대한 조어력을 이용하며 교육시키면 한자어 습득이 더욱 효율적일 것이라고 생각된다.

Culturality through *Gosijo* for advanced students

University of Mannheim
Hiyoung Park

I. Why *Gosijo*?

This contribution will offer an opportunity to consider how the one of the fixed Korean literary genres Korean “*Gosijo*”¹ for the purpose of the transmission of Korean values like “*Umyangohaeng* (음양오행)” etc. can be used in the classroom for advanced learners. In spite of the dilemma of the definition of “culturality”, the culturality of philosophy manifests itself in different cultures in the form of different normative evaluations, basic attitudes, and questions. So, in the course of learning of *Gosijos* (as the learning objective), the culturality can – as a side effect – convey parallel an important textual competence and a consequential textuality feature especially as part of communication competence and this kind of literary texts can serve as an informative source on the Koreans’ understanding of the world, as well as their perception of human relations and social matters.

In the earlier period of the Confucian society *Gosijo* was mostly monopolized by the scholars and the nobility but with the invention and propagation of *Hangeul* (한글), the *Sijo* came in the reach of all classes down to the lowest tiers of society. This aspect is the most influential event and resulted in the occurrence of all Korean values, norms, beliefs, culture and traditions and is exactly what *Hangeul*’s mission demands. The philosophical ideas only expressed by *Hanmun* (한문) are finally also transmitted with the invention and usage of *Hangeul* among ordinary people. In this sense according to Humberto Maturana „die Sprache als Basis und gleichzeitig Ausprägung von Kulturen und damit kulturellen Differenzen, ist selbst einem historischen zu beobachtenden Veränderungsprozess unterworfen“² should be remembered.

In this context, the philosophical themes of the *Gosijos* and their hidden (often instructive) messages on the subject are such as “Good defeats evil (권선징악)”, “a long life without illness (무병장수)”, “piety towards

¹ Korean literary history call the old ones as *Gosijo* and the new ones from 1920 as *Sijo*, which differ in many aspects, but this article will not treat it in detail.

² This text is translated by the author from German into English as follows: “the language as the basis and at the same time the expression of cultures and thus cultural differences is itself subject to a historical process of change” .

parents (효)”, “loyalty (충)”, “thankful reciprocity (보은)” and overcome/build up “trust (신의)” and like “I in nature or I and nature (자연 동화)”, “love (애정)” can contribute for this aim.

For this purpose four famous *Gosijos* from the Yi-Dynasty (*Choseon* Dynasty) are selected and translated into German as follows:

- “The Natural-Poem (자연가)” by Kim In Hu (김인후)
- “The Song of the five friends (오우가)” by Yun Sun Do (윤선도)
- “The long winter night (동짓달 지나긴 밤을)” by Hwang Jin I (황진이)
- “I pick a Willow branch (뫼버들 갈해 꺾어)” by Hong Rang (홍량)

II. Beforehand a small Introduction to the classical poems, the *Sijo*

Gosijo and *Sijo* are generally known as traditional lyrics of three lines or verses³.

Each line is made up of a four phrase group with a major pause after each grouping. The word *Sijo* consists of two Sino-Korean characters 시조 (時調) with a meaning of “time” or “period (時)” and “rhythm (調)” or “harmony”. The Korean spelling is “시조” and in revised Romanization “*Sijo*”. In the McCune-Reischauer equal to “*Sijo*” and in German it should be pronounced as “*Shidsō*”⁴.

The well-known name “*Sijo*” actually comes from “*Sijulgajo*” (시절가조 時節歌調) during the Yi-Dynasty and was first used by contemporary poet *Lee Se Chun* (이세춘) the word as “시조”.

The meaning of it is literally a “vocal poem popular at the time (그 시절에 유행하는 노래곡조)”. The origin of this type of poem can be found in the 16th century.

When *Hanmun* was the only written language in Korea, poems were written in the Chinese style. It is believed that *Hyangga* (향가), which originated in the *Silla* dynasty, could be the forerunner of *Sijo*⁵, but this thesis was not clearly proven. Unfortunately, neither the explanation of the word “*Idu* (이두)” can be found in the dictionary in connection with *Sijo*, nor the word “*Gugyul* (구결)” in the same dictionary.⁶ Popular stylistic

³ The *Sijos* before *Gapogehyuk* (갑오개혁) are generally called as “*Gosijos*” which holds especially true for the later use in Korean textbooks.

⁴ However, for the purpose of convenience in form and sound the term “*Sijo*” is used in this article.

⁵ The word “*Hyangga*” nearly means “the local song; the old Korean folk song”. It is a kind of short lyric, similar to Japanese *Danga* (短歌), which emerged during the late *Koryo* (고려) period.

⁶ Minjung's Essence Korean-German Dictionary.

devices like wordplay, metaphor, symbolism, and allusions⁷, can be found in every *Gosijos*, which makes this kind of genre much more sophisticated, ambiguous, upscale, and interesting.

II.1. Structure and shape of the *Sijo*

The literary genre “*Sijo*” is based on syllables or number of syllables. These 24 syllables are typical of the *Sijo* shape and without exception there are in three lines (with 14 to 16 syllables), but in total does not exceed 44 to 46 syllables.

In the dictionary, we can find the usage of this word *Sijo* in connection with a verb like e.g. 시조를 읊다 (recite a *Sijo* poem; to recite) 시조를 짓다 (make a *Sijo* poem; to make or to produce).

Despite many different opinions, the structure pattern looks like shown below:

Chojang (초장) the first line – the topic at (3,4/5,4,4)

Chungjang (중장) the expansion (3,4/5,4,4)

Chongjang (종장) finally – the counter topic (3,4) and the conclusion (4,3), cohesion (3,4,4,3)

II.2. Prerequisite of *Sijo* as "*Gojunmunhak* (고전문학)"

Without a doubt, *Sijo* (*Gosijo*) is the fundamental foundation of modern Korean literature and teaches the Koreans' wisdom and give the opportunity to see the life and feelings of the Korean ancestors. With it, the *Hangeul*-Learners can understand Korean traditions and conventions better.

Furthermore it presents not just the essential spirit of Korean values, but also the competence of transcendental view of poetry like the question about the meaning of life, even if it is a kind of Vanitas (to be vain / to be void)⁸.

Many of the 3600 *Sijos* as preserved in the classical anthologies contribute a commentary on history; on the events of social and political significance. It was also employed as a means of pouring out feelings and emotions of the public as well as formalistic norms and didactic precepts characterized by the Confucian society. The comparability of philosophical thoughts of the well known and notable occidental philosophy of “memento

⁷ In German it translates to: Wortspiele, Metapher, Symbolismus, Allusion.

⁸ The term “Vanitas” originally comes from Latin with the following meanings: Empty appearance, futility, nothingness, vanity, also boasting, failure or futility. The baroque poem is mainly characterized by Vanitas' s motives.

mori”⁹ and “*Insaengmusang* (인생무상)” may be remembered at this point as a means of comparison and better understanding.

III.1. The natural poem by *Kim In Hu*

Haseo (하서) *Kim In Hu* (김인후, 1510-1560) was a highly respected politician, philosopher, poet, and also a concede and recognised scholar of the *Yi*-Dynasty. His existential insight or perception of life and nature transformed into simple beauty are reflected in numerous of his poems. This *Chayonga* (자연가) was written after returning to his home following the death of King *In Chong* (인종) at the age of 35. The deepest disappointment due to the deteriorating national situation at that time and averting the political situation let him complain, but also overcome the situation with the wisdom of Confucianism in his poems. So this could be regarded as the dedication exclusively to his attitude of the teaching of Confucianism.

자연가 김인후	Das Naturgedicht <i>Kim In Hu</i>
靑山自然自然 綠水自然自然 山自然水自然 山水間我亦自然 已矣哉 自然生來人生 將自然自然老 청산도 절로절로, 녹수도 절로절로 산도 절로 물도 절로하니, 산수간 나도 절로	Die grünen Berge sind naturgemäß so, das grüne Wasser ebenso Berge sind so, Wasser sind so, dazwischen bin ich auch so Das Leben ist so entstanden und vergeht mit dem Alter sowieso ¹⁰

⁹ A large number of Korean old pictures, - for me especially the *Sumuk-Sansuhwa* (수묵 산수화) - reminds of the vanitas still lives, but even in this nothingness the wisdom of life is shared and remembered.

¹⁰ Here I have tried to translate it also into English:

The green mountains are naturally like that,
 the green water as well
 Mountains are like this, water is like that,
 in between I am like that too
 This is how life came about and
 goes away with age anyway

아마도 절로 삼긴 인생이라, 절로절로 늑사오리	
------------------------------	--

After sensual perception of the poem without reflection, at a glance, without consciously grasping and identifying, he succeeds to write the wonderful poem in accordance with his philosophy of life. For clarification of the unknown words subsequent discussion is necessary about the words such as “*Pilam Seowon* (필암 서원)“, “*Wonchingak* (원진각)”, and more. It is not wrong to let learners hear a song about this piece, also because it has a pedagogical purpose. To arouse the learner's interest I have chosen and introduced the song “*Chonsando Chollo Chollo* (청산도 절로 절로)”, also “*Jayonka* (자연가)” - 노래 송도영 / 작곡 임동창 - 용주사 승무제 - as below:

<https://www.youtube.com/watch?v=O6Ro-BeJt9s>

The resonance from the learners was - according to my experience - very impressively encouraging.

In particular, we can approach the following pedagogical aspects and pursue the goal of textual competence as listed below:

- What does the word “*Collo Chollo* (절로 절로)” mean?
- Is a word like “*Nuksaori* (늑사오리)” a suitable ending form?
- We need to clarify the meaning of the word “*Samgin* (삼긴)” from “*Samda* (삼다) / *Samgida* (삼기다)” and ask what the difference between the word “*Saengida* (생기다)” and “*Samgida* (삼기다)” is?
- It would be interesting and useful to attempt to try to find out a similar poem in German.

III.2. The song of five friends by Yun Sun Do

The nature poet, politician and researcher of the Yi Dynasty, Yun Sun Do (1587-1671) with pseudonyms *Gosan* (고산 孤山) and *Haeong* (해옹 海翁)¹¹ is in addition to *Chongchol* (정철), *Park Inro* (박인로) and *Song Sun* (송순), a representative voice of the Korean poetry of his time.

오우가 윤선도	Das Lied der fünf Freunde <i>Yun Sun Do</i>
------------	--

¹¹ His Bongwan (본관) is Haenam (해남 海南) and his Cha(자) is Yaki (약이 約而).

<p>내 벗이 몇이나 하니 수석과 송죽이라 동산에 달 오르니 기 더욱 반갑고야 두어라 이 다섯 밖에 또 더하야 무엇하리</p>	<p>Lass mich zählen wie viele Freunde ich habe Wasser und Gestein, Bambus und Pinien Wie erfreulich ist es mit dem aufgehenden Mond im Osten</p> <p>Lass es sein. Es ist genug mit diesen Fünf, wozu bräuchte ich mehr</p>
---	--

Although his most popular *Sijo Obusasiga* (어부사시가) “The Anglers Songs” , is a cycle with 40 *Sijos* and consequently the largest and most famous cycle of the classical period, I have chosen here his *Sijo* “The Song of (my) five friends “ for the same reason of topic, namely nature and people unify in one.

In terms of grammar and verbstyle in this *Gosijo* is an educational consideration of “-리라” instead of “-이다” and “-어라” instead of “-세요” , “-십시오” such as “-하리” versus “-하겠는가” in context is an attempt to compare the variable forms of endingform: “하다 / 한다 / 하여라 / 하리라 / 하노라 / 하리오 / 하랴” versus “두다 / 둔다 / 두어라 / 두리라 / 두노라 / 두리오 / 두랴” .

Furthermore the personalization of “water” , “stone” , “pine” , “bamboo” and “moon” as “the old poet’ s five friends” could cause a cultural consideration of approaching method with a comparison between Occident and Orient of popular means. So here we are dealing not only with a linguistic but also with a way of looking at things in cultural subconscious, unspoken culturality.

III.3. A *Sijo* by *Hwang, Jin I*

<p style="text-align: center;">동지 (冬至) 스달 지나긴 밤을 황진이</p> <p>동지 (冬至) 스달 지나긴 밤을 한 허리 를 베풀어내어, 춘풍 (春風) 니불 아래 서리서리 너헛 다가, 어른 님 오신 날 밤이여든 구뵈구뵈 펴리라. (구문)</p> <p>동짓달 지나긴 밤의 한 가운데를 베어내어서 춘풍이불 아래 서리서리 넣었다가 정든 님 오신 날밤에 구비구비 펴리라 (현대어)</p>	<p style="text-align: center;">Die lange Winternacht Hwang Jin I</p> <p>Ich scharbe aus der Taille der langen Winternacht heraus Rolle und lege sie in die Decke des Frühlingswindes ein Ich rolle sie eins nachdem anderen auf, in der Nacht, wo mein Liebster kommt</p> <hr/> <p style="text-align: center;">The long winter night Hwang Jin I</p> <p>I scratch out of the waist of the long winter night Roll and place them in the blanket of the spring wind I roll them up one by one the night my darling comes (An attempt by me in English)</p>
---	--

Apart from the way looking at *Yun Sun Do*' s poem the necessity to compare the onomatopoeic like “서리서리” , “구비구비” must be emphasized in this *Gosijo* of *Hwang Jin I*, because this onomatopoeic in many poems it can occur a lively everyday life and language power (or energy of the words) can be generated. Through this effect also a living sound culture can be compared.

We should not deny a very special magic area and it is the metaphoricity of a language culture. Since it experiences its highest increase and condensation in the poems, the translation of poems is generally regarded as the highest translation achievement. Many language pictures elude direct translation; they require finding new or comparable language pictures in the target language.

Based on the target strategy of culturality an empowerment to shape an emotional life for the learners is significant. In this area the research of discourses on questions of aesthetic learning should be mentioned. How could these be located within the framework of a wide and broad understanding of foreign language and interdisciplinary education or upbringing and further developing if necessary?

III.4. A *Sijo* by *Hong Rang*¹²

In contrast to *Hwang Jin I*, *Hong Rang* lived under the most arduous class-difficulties and the hardest fate during the rule of King *Sunjo* (선조). An extraordinarily tragic love affair between *Hong Rang* and *Choi Gyungchang* (최경창) was the motivation to write this poem. This love affair is known from the episode after *Choi's* death when she had hurt her face with stones, so that the other men cannot desire her and hand over their love letters to the family of *Choi* etc. and lived three years, serving in front of his grave. After that, she committed suicide there. Her grave can still be found next to *Choi* in *Kyungjdo Paju* (경기도 파주).

무제 홍량	Kein Titel <i>Hong Rang</i>
뿔버들 갈해 꺾어 보내노라 님의 손대 자시는 창 밖에 심겨 두고 보소서 밤비에 새잎 곧 나거든 날인가도 여기소서	Ich pflücke einen Willow Zweig und sende ihn zu dir Pflanze ihn bitte vor deinem Schlafzimmerfenster und beobachte ihn zu wachsen Ersprießen die neuen Blätter im Nachregen, denke bitte an mich, als wäre er ich

For educational purposes and moreover for making the lesson interesting I have chosen an introductory film like below:
<https://www.youtube.com/watch?v=e14dzb8uhLk> (민수현 - 홍량)
 Afterwards, I give the learners the opportunity to internalize for cultural comparison. A short explanation of some words could be necessary to understand the poem. For example, the word “*Sonda* (손대)” has the same

¹² An attempt at translation into English by J. Kim is slightly different from the original text under close observation:
 I pluck a willow branch
 and send it to you.
 Plant it by your window side
 and watch it grow.
 When buds appear after a rain
 take them for me.

meaning as “*Naerimdae* (내림대)” and at the shaman ceremony, the bamboo or pine branches are used for the purpose of receiving the gods. Furthermore the word “*Mytbodul* (뭇버들)” should not be overlooked as an item, but here as a concealed metaphor, also a part of *Hong Rang*'s love and be regarded as the most merged in hearts of German's nostalgia, “*Sehnsucht*”. Moreover in this sense, the verbs “*보다, 보소서 / 여기다, 여기서*” are not just an imperative form, which strongly shows her wishes or longing for *Choi* and to be with him.

IV. Conclusion and perspective

In this contribution, I have tried to consider transferring the culturality through the teaching of four *Gosijos* with an attempt to translate them into German. The expansion and reorientation of this kind of teaching material seems to be not just sensible but also useful and necessary in the classroom for advanced learners, also because they are linguistically able to internalize and absorb it.

For the interdisciplinary goals, the competence of *Hanja* is also drawn into teaching, so that the culturality of textuality in the sense of communication (competence) and interactional orientation helps, which implies language promotion.

In this article, the importance of the explanation of terms that describe comparable products in German, like the clarification of the word “*Uri* (우리)” in the sense of “I and you” and “subjectivity and objectivity”¹³ were discussed.

The culturality based on the formulation of “Korean values” can raise questions like, “how can it be possible to have the foreign language didactic contribution succeed conceptually more precisely and realized in terms of its background? It also becomes more difficult in the area of the symbolism of animals and plants, which often have very different associations in Korean and German.

A common feature of all aspects mentioned above is that they require reflexive approaches. What is the significance of culturality as the goal of education in the context of culture and how the importance of understanding cultural specifics with a variety of approaches as well as their interpretation depending on the cultural background can be conveyed? According to Zhao, as my final emphasis, intercultural competence commonly requires a sense of culturality, which means the ability to “be aware of the cultural, personal and external image and the meta image in a situation

¹³ As far as I know, this concept of “we” has been sufficiently mentioned and discussed among Korean teachers, but it is still now never enough.

of overlapping and to act confidently on this basis”¹⁴. For the sake of becoming aware, the textual competence of culturality in a foreign language is at the outset an important part of the intercultural competence in a preliminary stage. By teaching and learning of *Gosijos* we as the teaching staff can reach this goal in a humble way at least as a guiding observer. This awareness of the transmission through *Gosijos* for the advanced learners could appeal plenty of discourse in the context of culturality and this discourse will have an interactive character as some of the meanings we will guess together with the advanced learners, who will bring their own interpretations.

참고 문헌

- 이광복 (2000): 독일문학교육을 위한 새로운 문학교수법적 개념들. 독일언어문학 제 13 집, 191-212.
- 박희영 (2018): 한국어 고급반을 위한 한국 고전전래문학 및 고시조 활용. S. 219-233. In: 유럽한국어 교육의 동향과 보고. 도서출판 하우.
- Cha, Chung-Hwan (2013): Japanese Learning of Korean Culture through Korean.
- Cho, Dong-IL (2005): Korean Literary History in the East Asian Context. Acta Koreana, Vol. 8 (2), 97-115 Classucal Novels. Korea Journal, Vol. 53 (2), 155-180.
- Choe, Ikhwan (1991): Form and Correspondence in the Sijo and Sasöl Sijo. Korean Studies, Vol.15, 67-82.
- Chung, Chong-wha (1989): Korean poetic tradition and the sijo. 54-62
- Chung, Chong-wha (1989): Thirty Sijo Poems, 63-94.
- Gnutzmann, Claus u.a Hrsg. Jahrgang (2018),: Fremdsprachen Lehren und Lernen (FLuL). 47. Narr Francke Attempto Verlag GmbH + Co.KG.
- Hoppmann, Dorothea (2009): Einführung in die koreanische Sprache. Verlag Buske.
- Kim, Edeltrud (2015): Übersetzen im Tandem. Probleme und Möglichkeiten einer Notlösung. Bonn, in Orientierungen, Zeitschrift zur Kultur Asiens.
- Kim, Joyce Jaihiun (1982): Master Sijo Poems from Korea. Classical and Modern.
- Kim, Joyce Jaihiun (1986): Classical Korean Poetry. Hanshin Publishing Co.
- Ko, Young Cheol (2017): Exploring the Elements of Korean Literature Education Contents for Foreigners: Selection of Korean

¹⁴ Jin Zhao (2017): Deutsch als Fremdsprache. Zeitschrift zur Theorie und Praxis des Faches Deutsch als Fremdsprache. “상호문화적인 능력이라는 것이 문화와 문화가 조우하는 상황에서 자신과 이방인 그리고 문화적 초월성을 의식하고 이러한 능력을 토대로 자신있게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여기서 외국어의 텍스트 이해력은 상호문화적 능력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된다” (translated by the author).

- Literature Education Contents for Russian Universities. Global Media Journal: American Edition, Vol. 15, 1-9.
- Maturana Humberto, Francisco Varela (2009): Der Baum der Erkenntnis. Die biologischen Wurzeln menschlichen Erkennens. Scherz, Bern / München / Wien 1987, S. 224-229.
- Mersmann, Birgit (2012): Zwischen Skylla und Charybdis. Literarische Übersetzung aus dem Koreanischen ins Deutsche.
- Scherpinski-Lee, Anja (2011): Die Bedeutung von Emotionen in der koreanischen Interaktion. Ausgabe 14.
- Zhao, Jin (2017): Deutsch als Fremdsprache. Zeitschrift für Theorie und Praxis des Faches Deutsch als Fremdsprache (Hefte 2/2017).
- Zhao, Jin (2018): Wissenschaftsdiskurs-kontrastiv: Kulturalität als Textualitätsmerkmal im deutsch-chinesischen-Vergleich (Diskursmuster-Discourse-Patterns), Band 18.
- Dictionary: Minjung's Essence Koreanisch-Deutsches Wörterbuch
ISBN 978-89-387-0502-0 1981.

웹사이트 (참조)

- Accessed all on 26. February 2020

- www.DaFdigital.de (Hefte 2/2017) (Deutsch als Fremdsprache. Zeitschrift zur Theorie und Praxis des Faches Deutsch als Fremdsprache)
- <https://parapluie.de/archiv/uebertragungen/koreanisch/anhang.html> (Zwischen Skylla und Charybdis. Literarische Übersetzung aus dem Koreanischen ins Deutsche)
- <https://www.youtube.com/watch?v=l10egzyR0JY> (#와요와티비 #민수현 #홍랑)
- <https://www.youtube.com/watch?v=wqC4kMyxWpE> (동짓달 기나긴 밤을 - 평시조)
accessed on 21. February 2020
- <https://www.youtube.com/watch?v=06Ro-BeJt9s> (청산도 절로 절로 ("자연가"- 노래 송도영 / 작곡 임동창 - 용주사 승무제)

박희영 (Park Hiyoung)
독일 만하임 대학교 교양학부
Universität Mannheim
Studium Generale L 9, 7
68161 Mannheim / Deutschland
전자우편: hipark@mail.uni-mannheim.de

과업 중심 교수법에 기반한 대학 내 비즈니스 한국어 수업 사례

홍콩대학교 한국학과

백영경

1. 들어가는 말

한국어의 위상이 높아지고 해외 대학에서 한국어 교육의 역사가 길어진 것에 비례하여 다양한 목적으로 한국어를 학습하는 학습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학습자들의 한국어 수준도 점점 높아져 취업, 학문 등의 다양한 요구를 가진 학습자들이 많아지는 추세이다. 홍콩에서의 상황도 비슷한데, 특히 홍콩대학교는 홍콩에서 유일하게 한국학이 전공으로 개설된 곳으로 전공 필수 언어 과목 이외에도 전공자와 비전공자를 위한 언어 선택 과목(inter-disciplinary elective courses)을 다양하게 제공하여 다변화된 학습자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있다. 본 발표에서는 이 선택 과목 중 하나인 비즈니스 한국어 수업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2. 과업 중심 교수법(Task-based Language Teaching)

본 수업은 과업 중심 교수법을 기반으로 설계되었다. 한 학기는 둘로 나뉘는데, 전반부에는 매 수업마다 업무 상황과 관련된 과업(task)이 주어지며, 학기 후반부에는 5 주에 걸쳐 하나의 과업인 마케팅 전략 발표를 달성하는 과정을 바탕으로 수업이 전개된다.

이는 지난 2년간 한국어 비즈니스 수업을 수강하는 학습자들의 요구가 두 가지로 나뉘는 것을 반영한 결과이다. 조사 결과 졸업 후 한국 회사에서 일하기 위해 업무에 필요한 의사소통 능력을 키우기 위해 비즈니스 수업을 수강하는 학생들이 있는가 하면, 한국 회사에 취업할 계획이 없더라도 공식적인 상황에서의 고급 프레젠테이션 기술, 문서 작성 기술 등을 배우기 위해 이 과목을 수강하려는 학습자들도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습자들의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시중에 나와 있는 비즈니스 한국어 교재의 교육 내용¹에 더해 좀더 실용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학습시킬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학습할 수 있고, 실제 자료를 사용해 교실 안에서의 언어 학습과 교실 밖에서의 실제 언어 사용의 연결성이 높아지는 과업 중심 교수법(Nunan, 2004)을 따라 실제 업무 상황에서 접할 수 있는 과업을 중심으로 교육 내용을 정하되, 업무 상황 아니라 전반적인 고급 수준의 한국어 말하기/듣기/읽기/쓰기 능력을 기르는 데도 도움이 되는 과제들을 설정하였다.

¹ 김현진·강승혜·홍윤혜·한상미·박수연 (2018, 306 쪽)에서는 국내에서 출판된 비즈니스 한국어 교재에는 일상적인 내용이 많아 영어 교재보다 비즈니스 상황 및 업무 관련 어휘, 표현 등과 같은 실제 업무 관련 내용이 적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3. 수업 구성

1) 수업 구성 및 대상

홍콩대학교의 비즈니스 한국어 수업은 매년 1 학기에 개설되며 5 학기째 필수 한국어 수업을 수강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개설되는 언어 선택 수업이다. 이 수업을 수강하는 학생들의 한국어 수준은 TOPIK 4-5 급에 해당한다. 수업은 일주일에 2 시간이며 한 학기는 12 주로 구성된다. 필수 언어 과목에 비해 수업 시수가 적지만 동일하게 6 학점을 받는 수업이므로 주 5 시간 수업을 하는 필수 언어 과목과 유사하게 학습량이 많다. 본 수업은 수업 후 자습(self-study) 시간이 70 시간으로 주어지는데 학생들은 이 대부분의 자습 시간을 프로젝트 준비와 과제에 할애한다.

2) 수업 목표

비즈니스 한국어(Korean for Professional Purpose)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 업무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한국어를 학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명숙(2003)에서는 비즈니스 한국어의 교육 목표를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의사소통 능력 향상'으로 정의하였다. 본 수업에서는 이 목표를 세분화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수업 목표(learning outcome)를 제시하고 있다.

- 고급 한국어 어휘와 표현을 구사할 수 있으며 이를 다양한 업무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다.
- 업무 관련 자료와 전략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발표할 수 있다.
- 한국과 홍콩의 서로 다른 비즈니스 문화를 이해할 수 있다.

3) 교수 요목 및 교재

비즈니스 한국어의 교육 범주와 내용에 대한 연구로는 이미혜(2003), 정명숙(2003) 등을 들 수 있는데 이 들에서는 교육 내용을 크게 취업 전, 취업 후 직장 내에서의 인간 관계, 업무 수행에 관한 것 세 가지로 나누었다. 그러나 본 수업의 교육 내용은 학습자 언어 수준과 수업 목표에 맞게 직장 내 업무 수행으로 한정된다. 이러한 교육 내용을 바탕으로 한 교수 요목은 아래 표와 같다. 총 12 주차의 수업 중 발표와 평가를 제외한 나머지 10 차시에 10 과가 배분된다.

차시	
1	업무 이메일 쓰기
2	제품의 문제점, 개선점 듣고 말하기
3	제품 설명하기, 신제품 개발 관련 어휘 학습하기
4	업무 전화 받기, 걸기
5	회의하기
6	신제품 개발 소개 발표하기
7	마케팅 전략 관련 어휘, 문법 학습하기
8	SWOT 분석 표현 익히고 분석하기
9	시장 분석 표현 익히고 분석하기
10	업무 관련 표, 그래프 읽고 분석하기
11	국제 마케팅 이해하기
12	마케팅 전략 발표하기

<표 1> 비즈니스 한국어 교수 요목

위의 표 내용처럼 학습자들은 매시간 업무 상황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언어의 네 가지 기능으로 구성된 과업을 수행하게 된다. 평가 방식은 학기 전반부와 후반부에 두 번의 발표와 학기말에 학습 내용을 확인하는 퀴즈로 구성되어 있다. 수업의 주교재는 연세대학교출판부의 <비즈니스 한국어>를 기반으로 하여 현지 사정에 맞게 각색하고 내용을 추가한 학습 자료이다. 이에 더해 각 과의 주제에 부합하는 신문 기사, 뉴스 등이 자습 과제로 주어진다.

4. 기말 프로젝트 수업 절차

상술하였듯 학기 후반부는 마케팅 전략 발표라는 과업을 이루기 위해 프로젝트의 준비, 수행, 발표로 구성된 보편적인 프로젝트 수업의 절차를 따라 진행된다. 기말 프로젝트는 ‘마케팅 전략 발표’로 학습자들은 자신이 선택한 브랜드/회사의 SWOT 분석, 시장 분석, 소비자 분석을 한 뒤 이를 바탕으로 마케팅 전략을 세워 발표해야 한다. 학기 후반부의 10 차시 수업은 궁극적으로 이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학습자들은 각 수업에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내용 지식과 언어 지식을 모두 학습하게 된다.

기말 프로젝트는 본 수업이 전제로 하는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세워진 것이므로 프로젝트의 목표도 이와 연계되어 있다. 학습자들은 프로젝트를 준비하며 제품 관련 어휘, 시장 분석 관련 어휘와 같은 고급 한국어 어휘와 공적 발표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을 구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발표 준비 과정에서 기존의 브랜드, 시장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표나 그래프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학습자들은 이 과정에서 방대한 양의 실제 자료를 접하게 되며, 이것을 한국어로 읽고 재구성하여 청중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읽기, 쓰기 능력 향상도 기대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조원들과 전략을 도출해내기 위해 해야 하는 회의 및 협상 시 필요한 말하기 능력도 훈련할 수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현지화 전략 등 국제마케팅과 관련된 부분을 학습하며 한국과 홍콩의 비즈니스 문화 차이, 소비 문화 차이에 대한 인식 향상도 프로젝트의 목표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1) 프로젝트 전- 준비 단계

프로젝트 전 준비 단계는 수업 시간에 이루어진다. 학습자들은 학기 후반부 첫 수업 시간에 프로젝트에 대한 안내를 받고, 각 차시마다 과제 수행에 필요한 마케팅 관련 내용과 전문 어휘, 그래프와 자료 분석 및 발표에 필요한 문법 및 표현을 학습하게 된다. 각 수업 시간의 학습목표는 다음과 같다.

6 과	마케팅 상황 분석 마케팅 개념 이해하기 마케팅 전략을 세우기 위해 필요한 것에 대해 알아보기
7 과	기업 내부, 외부 환경 분석- SWOT 분석이란 무엇인가 SWOT 분석 관련 표현 학습 SWOT 분석 실제로 해 보기
8 과	소비 트렌드 관련 어휘 익히기 소비 트렌드 자료 읽기 소비 트렌드 뉴스 듣기 홍콩의 소비 트렌드와 배경 발표하기
9 과	자료 분석 자료 증감 추세 어휘 익히기 그래프 설명하기

	그래프와 자료를 분석하여 마케팅 전략 발표하기
10 과	국제 마케팅 이해하기 이색 마케팅, 해외 마케팅 자료 읽고 이해하기 현지화 전략 이해하기

<표 2> 비즈니스 한국어 프로젝트 준비 단계 수업 내용

2) 프로젝트 수행- 수업의 실제 및 과제

학습자들은 프로젝트 안내 후 2 주 뒤에 자신들이 선택한 기업의 소개와 SWOT 분석 내용이 담긴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에 대한 피드백을 받은 후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된다.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 수업 시간 내에서 이루어지는 말하기, 읽기, 듣기, 쓰기 과업이 모두 이 프로젝트의 연장선상에서 진행되므로 프로젝트의 수행은 학습자들이 실제로 수행해야 하는 과제로서의 프로젝트와 수업 내의 활동을 모두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절에서는 프로젝트 계획서를 제출하기 전 과정인 제 7 과 수업의 실재를 소개하고자 한다. 학습자들은 전 차시 수업인 6 과에서 마케팅의 개념과 마케팅 전략을 세우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등에 대해 선수학습한 상태로 해당 과에서는 SWOT 분석의 개념에 대해 배우고, 필요한 어휘 및 문법을 학습한 후 실제로 한 기업의 SWOT 분석을 하게 된다. 7 과의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다.

- SWOT 분석 개념 이해하기
- 관련 어휘/표현 학습
- SWOT 분석 해 보기
- 분석 결과 발표하기

다음 절에서는 이 목표에 따라 진행되는 수업의 실재를 기술하도록 하겠다. 7 과의 수업은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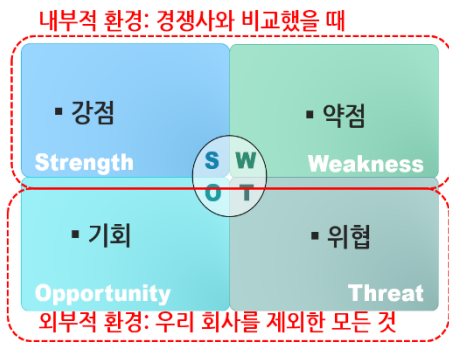


가) 도입

수업을 시작하며 학습자들에게 홍콩에서 업계 1 위, 2 위로 친숙한 기업명을 예로 들며 이들의 성공, 실패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가볍게 묻는다. 1 위가 아닌 기업의 실패 요인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매출을 올릴 수 있을지 브레인스토밍을 해 본다. 이때 학습자들이 기업의 내부적 요인과 외부적 요인을 언급하면 이를 나눠서 관서한다. 이와 같은 배경지식 활성화를 바탕으로, 기업의 마케팅을 위해서는 체계적으로 기업 내부 환경과 외부 환경을 분석해야 하고 이에 맞는 전략을 도출해 내야 함을 설명한다.

나) 내용 관련 어휘 및 표현 학습

도입 단계에서 학습자들이 말한 내용과 연관시켜 가며 <그림 1>의 슬라이드를 따라 SWOT 분석에 필요한 어휘를 하나씩 설명해 나간다. 어휘를 제시할 때는 연어 형태로 제시하여 학습자들이 말하기 활동을 할 때 생산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다.



강점/약점

- 브랜드/회사 인지도
- 가격 경쟁력
- 서비스
- 매장 접근성
- 품질 만족도
- 제품 개발 능력/기술력
- 생산 시설
- 인력 문제(임금/이직률)
- 자금 문제
- 해외 진출 능력

[그림 1] SWOT 분석 관련 어휘 슬라이드

다음으로 학습자들이 어휘에 익숙해지도록 학습한 어휘를 사용해 실제로 기업 분석에 적용시켜 보는 활동이 주어진다. 이 활동에서는 예시 기업으로 유아 촬영 전문 스튜디오의 SWOT 분석 내용이 제시된다. 학습자들은 조별 논의를 거쳐 해당 분석 내용을 학습한 대로 각각 강점, 약점, 기회, 위협으로 분류해 보며 관련 어휘의 의미를 분명히 파악하게 되고 분석 방법에도 익숙해지게 된다.



[그림 2] SWOT 분석 연습 슬라이드

다음 단계에서는 예시 활동에서 완성된 SWOT 분석을 바탕으로 사진 스튜디오의 마케팅 전략을 세우는 방법이 제시된다. 학습자들은 강점과 기회, 강점과 위협, 약점과 기회, 약점과 위협의 조합을 바탕으로 최소한 네 개의 전략을 도출해낼 수 있음을 배운다. 스스로 전략을 도출해내는 학습자들도 있지만 비즈니스나 마케팅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학습자들을 위해 이 단계는 교사와 학습자 간의 전체활동으로 진행된다.

다) 발표 관련 표현 학습

마케팅 전략 수립 방법을 학습한 후, 학습자들은 언어에 집중하여 SWOT 분석 결과 및 전략 수립 결과를 발표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을 학습하게 된다. 본 단계에서 제시되는 표현은 설명하기, 강조하기 등의 기능에 맞는 담화 표지를 포함하고 있다. 학습자들은 앞에서 전체 활동으로 학습한 촬영 스튜디오의 마케팅 전략을 사용해 해당 표현을 대치연습으로 활용해 보게 된다.

1. 강점과 약점 설명하기

- 약점/강점으로는 ()을/를 들 수 있습니다.
- ()은/는 우리 회사가 가진 강점/약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것이야말로 우리 회사가 가진 가장 큰 강점/약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은/는 () (이)라는 점에서 봤을 때 우리 회사의 강점/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표 3> SWOT 분석 발표 표현 예시

라) SWOT 분석 후 발표

7 과의 마지막 활동은 이제까지 배운 내용 지식과 언어 지식을 모두 활용해 주어진 기업에 대한 SWOT 분석을 한 후 마케팅 전략을 세워 발표하는 말하기 과업이다. 학습자들은 조별로 간단한 가상의 기업 소개가 있는 연습지를 받고, 그 중에서 하나의 기업을 골라 짧은 SWOT 분석을 하고 간단하게 마케팅 전략을 수립해 발표하게 된다. 기업 소개는 표 4 처럼 간단하게만 제시되기 때문에 학습자들은 조별 논의를 거쳐 내용을 추가해 분석 및 발표를 해야 한다. 이 발표는 7 과에서 배운 지식을 통합하여 수행하는 마지막 과업이자 조별로 본격적으로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 연습 단계라 할 수 있다.

1. 꼬꼬네 (치킨 전문점)

꼬꼬네는 서울 근교에 대규모의 닭농장을 운영하여 질 좋은 닭을 재료로 다양한 치킨 요리를 파는 회사이다. 1998 년에 문을 열어 지금까지 전국 400 여 개의 체인점을 가지고 있다. 품질 면에서 업계 1 위인 엄마 치킨, 2 위인 흥가네 치킨에 뒤떨어지지 않지만 매출은 오르지 않고 있다.

<표 4> 기업 소개 예시

학기 후반부는 이처럼 마케팅 전략 발표라는 기말 프로젝트를 위해 단계별로 계획된 다섯 개 과를 학습해 나가며 진행된다. 학습자들은 각 단계에 맞춰 각 차시마다 주어지는 과업을 수행하는 동시에 여기에서 배운 내용을 발전시켜 본인들의 프로젝트를 구성해 나가게 된다.

3) 프로젝트 발표

프로젝트의 마지막 단계는 완성된 프로젝트를 발표하는 것이다. 발표는 학기가 끝난 후 2 주 뒤에 진행되며 한 조당 20 분 동안 발표를 하게 된다. 학습자들은 준비한 내용을 파워포인트를 사용해 발표를 하게 되며, 발표가 끝난 후 교사-학습자, 학습자-학습자 간 질의응답 시간이 주어진다. 발표에 대한 교사의 피드백은 이후에 이루어지며, 평가 항목에 따라 피드백을 제시하여 학습자들이 세부적으로 잘한 점과 부족한 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평가 항목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케팅 전략 발표의 핵심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가• 관련 사업에 대한 홍콩 시장 분석을 잘 했는가• SWOT 분석을 통해 브랜드의 내부 환경과 외부 환경을 잘 분석했는가• 시장 분석과 SWOT 분석 결과에 맞는 마케팅 전략을 선택했는가
----	---

언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케팅 전략 발표에 맞는 공식적이고 격식적인 표현을 사용했는가 • 분석 결과 발표에 필요한 표현으로 내용을 분명히 전했다는가 • 그래프 및 표 분석에 알맞은 표현을 사용했는가
전달력	발음, 억양, 목소리 크기, 속도 등이 적절한가
시각 자료	PPT 등 발표 자료가 완성도가 있는가

<표 5> 마케팅 전략 발표 평가 항목

5. 나가는 말

본고에서는 홍콩대학교 한국학과와 비즈니스 수업의 열개와 학기말 프로젝트의 진행 방식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고는 특수 목적 한국어 교육에서 내용과 언어 교수가 적절히 조화를 이룰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프로젝트 수업을 제시하고, 그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프로젝트 수업은 학습자들로 하여금 실제로 업무 상황에서 사용 가능한 언어와 내용을 학습하는 동시에 그에 걸맞은 과업을 직접 수행해 본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또한 학기말 프로젝트에서는 학습자들이 스스로 고른 기업과 재화/서비스에 대해 탐구하고 발표를 하게 되므로 주제와 과업에 대한 동기 부여와 흥미 유발에 큰 도움이 된다.

그러나 이 수업에도 여전히 개선되어야 할 점이 있다. 먼저 적합한 교재를 찾는 것의 문제가 있다. 시중의 비즈니스 교재들은 홍콩대학교의 비즈니스 한국어 수업을 수강하는 학습자 수준에 맞지 않거나, 비즈니스와 관련된 의사소통 기능을 학습하기보다 문법 항목 학습에 집중한 교재들이 대부분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본 수업을 위해 따로 자료를 제작하기도 했으나 그 과정에서도 실제적인 자료를 구하고 이를 학습자 언어 수준에 맞게 가공하는 것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두 번째는 과목 특성 상 교수자가 비즈니스 관련 전문 지식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내용 중심 교수가 필요한 경우 비즈니스 관련 책이나 논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프로젝트 이외에도 더 다양하고 학습자들이 다가가기 쉬운 주제로 비즈니스 관련 어휘나 문화와 함께 어학 지식을 익힐 수 있는 과업 및 학습 내용을 찾아 나가야 한다는 과제가 남아 있다.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려면 더 다양한 종류의 과업을 고안하고 학습자 수준에 맞게 자료를 각색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며, 내용 지식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내용 관련 전문가의 특강, 팀티칭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비즈니스 한국어를 비롯한 특수 목적 한국어 교육의 실제 및 개선 방안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김현진·강승혜·홍윤혜·한상미·박수연(2018), 세종학당의 비즈니스 한국어 교육과정 설계를 위한 요구분석, <언어사실과 관점> 44 호, 언어정보연구원, 293-321 쪽.
- 박지원(2007), 비즈니스 한국어 교육을 위한 프리젠테이션 담화 분석,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32 권,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105-140 쪽.
- 이미혜(2003), 직업을 위한 한국어 교육 연구: 교육 현황 및 '비즈니스 한국어' 개발 검토, <한국어 교육>14-2 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27-253 쪽.
- 정명숙(2003), '비즈니스 한국어'의 교수요목 설계를 위한 연구, <한국어교육> 14-2 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403-421 쪽.
- 조혜원(2018), 사례 연구 방식을 이용한 직업 목적 한국어 모듈 개발, <국제한국어교육학회 제 28 차 국제 학술대회 자료집>,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21-229 쪽.
- 최혜령(2015), 사례연구법을 적용한 비즈니스한국어 수업모형 개발, <한국어교육> 26-3 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67-285 쪽.
-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2010), 비즈니스 한국어, 연세대학교 출판부.
- Nunan, D. (2004). Task-Based Language Teaching.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